



2010.04 Vol. 213 April





Contents

2010. 04 Vol. 213 April



02	특별기고	문화원의 역할과 우리 문화
06	한지봉 한솔밤	부산 사상문화원
08	연합회 소식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
12	문화원 이야기	서산문화원의 회원관리
14	우리나라, 산	우리나라의 산과 산수화
18		우리나라 산송배 전통과 산신
22		산의 숨은 청소부, 버섯이야기
28		21C 자원관리를 위한 도구로서의 숲해설
32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옛책(古書)의 향기를 맡다
36	인식의 전환 생활문화 '공간'	사이버공간에서 살아가기
40		마음을 담은 공간 '건축물 이야기'
44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48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2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소식
59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호현(다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민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협정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8382-7924 | 인쇄 태인 세인피 02)2288-2111 | 표지 사진협조 평택문화원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소개를 받은 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1. 문화원의 역할

저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공주문화원에서 각종의 일들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평회원에서 향토문화연구회 회원을 거쳐 일부 임원의 역할을 맡았었고 현재는 비상근 부원장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출입한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보다 훨씬 일찍부터였습니다.

1973년부터이니 제 나이 17세 때였지요. 당시 공주에는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이 문화원 밖에 없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에 책을 읽고 싶으면 언제나 문화원 독서실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게 모르게 문화원과 함께 성장해 온 사람이며 지금은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방의 문화원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꽤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주관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역 문화가에 생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화 기관과 단체가 늘어나고 그 역할이 분할되면서 각각의 특성을 생각하다가 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문화가에는 박물관과 국공립 예술단을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이밖에 문화원 예총, 민예총.

문화원의 역할과 우리문화

행정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교실, 청소년 문화 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문화 센터 등은 역할이 각기 다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구분 짓기 위해서 운영의 목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 1) 예총은 현재적인 예술의 창달과 예술인들의 발전적 동기 부여와 예술인들의 상호 결속을 목적으로 하며
 - 2) 민예총은 민족예술의 창달과 민족예술인들의 발전적 동기 부여와 상호 결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3) 주민자치센터는 일반 주민들의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여가 선용의 개념으로 무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4)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보내기와 공부하는 풍토를 문화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 5) 문화원은 정신문화의 창달과 문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 지역문화 전반의 특색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결국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총은 지역의 예술을, 민예총은 지

역의 민족예술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건강을,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를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여 인식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이 기준이 문화원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원은 지방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예총과 민예총은 민간 예술 단체이지만 문화원은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또 한 가지 앞서 말한 기관이나 단체는 모두 관변 단체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가장 큰 확보대책이 모두 시군구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원이 기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지역의 문화 기관 단체 중에서 기관은 유일하기 때문인데 시군구청을 운영하는 지방 행정가에 선거로 선출되는 선출직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원 운영에 문화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업에서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면에서도 우려할 만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원에서 전통 문화를 소중히 하는 면과 지역 특색 찾기의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이용자나 운영의 인적자원이 노후화 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화원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문화원 운영에 문화 외적 요인이 많아지는 것과 노령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문화인들이 좀더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지역의 정신문화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 문화원의 존재 이유이고 이외의 무엇으로도 목적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 향토 문화의 중요성

우리 문화라는 말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민족이 지녀 온 모든 전통 문화를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산업 사회로 발전 할수록, 아니 직설적인 표현으로 개개인이 먹고 살만해 지면서 서양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못지않게 전통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양문화가 판을 치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문화만 가득 찬 것 같지만 사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우리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은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활발해 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문화에 대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투자는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지방행정이라는 면에서는 그 고장을 대표하는 특징은 거의 그 고장의 전통문화나 역사에 의존합니다.

한국의 어떤 고장도 서양문화에 뿌리를 둔 무엇을 지역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고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우리 문화의 속살에 해당하는 향토 문화 즉 그 고장의 전통문화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공주지역의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설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경로당을 출입했는데 노인어른들이 부르는 노래의 노랫말이 문학성이 뛰어난 것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민속놀이 분야와 마을단위의 생활 체계가 민주적이면서도 자치적 기능이 뛰어났었다는 사실에 관심의 폭이 넓어진 것이지요.

민속놀이나 민속의 예능 분야를 알아갈수록 저는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민속이나 예능들은 점점 고사되어

가고 있어서 오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웃놀이의 종류가 40종이 넘는다는 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로의 대동계와 두레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양반들은 이를 운영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지 어린이들의 놀이와 관련해서도 간난이이는 어른들이 어우르는 놀이와 노래가 있고 소년 소녀들이 스스로 즐기는 노래와 놀이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 등을 알아가면서 조금 허풍스럽게 말해서 세계 유일의 문화가 우리 고장에 적지않게 존재 한다는 것에 소름 돋아 했습니다.

창부타령이나 노랫가락 같이 흔했던 민속도 지역에 따라 부르는 창법과 박자, 그리고 노랫말이 달랐다는 점에서 경기 민요와 공주의 민요는 같으면서도 다르기에 세계에서 하나뿐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의 정서와 정신을 담은 그릇으로써의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색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자들은 현대 산업적인 면에서도 부가가치를 생성할 소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문화원이 지역의 정신문화적 특색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유일의 문화 기관이기에 향토 문화를 소중히 모으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문화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하여 현재적 입장에서 계승과 발전에 한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하고 솔직한 입장에서 살펴보

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 말하라 한다면 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세우고 그들이 우리 문화를 즐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정 분야의 특정한 분류의 청소년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폭넓게 즐길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문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향유하고 그를 위해 교육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청소년층이라는 사실은 모두 아는 것이고 기성세대가 보여주어야 할 모범은 현재적 입장에서 규범을 세우고 청소년들의 오늘에 영향을 주어 미래에 생활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서양의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문화에 취해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전통이나 한국적인 문화라는 것들은 나이트 사람들만 하고 이 중에서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그들만의 전유물> <그들만이 즐기는> <그들만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를 비관적으로 말한다면 기성세대나 장년 노년층에게만 우리문화가 먹히는데 이는 미래적 관점에서 전승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고 있는 현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틀러버린 것이 아니냐>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 가운데서도 현재 청소년들의 대중문화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물놀이와 타악(打樂)입니다.

사물놀이는 마당에서 서서 즐기는 예능을 실내 무대에 앉아 연주하는 음악으로 재구성되고 재창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앉아서 치는 풍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풍장놀이의 우수한 인자를 모아 현재에 맞도록 재창작하였고 그를 연주하는 사람을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었으며 그 뛰어난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악은 이를 근간으로 제작되어서 공연한 작품인 난타의 성공에 기인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작품의 성공이 시들어가는 풍장의 문화를 다시 일깨웠고 청소년들 다수가 즐기면서 미래 풍장 문화의 큰 힘(에너지)을 갖게 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재구성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문화의 특질을 지키고 살려 낸 것이 좋았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사물놀이가 성행하여 지역의 특색과 향토성이 담긴 풍장의 관재나 가락이 숨을 쉬지 못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지만 사물놀이의 성공을 교훈삼아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대중적으로 즐기게 하는 문화로 가는 것이 우리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4. 우리 문화에 관한 문화원의 역할

어른들은 버릇처럼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교육을 우선으로 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배우려 하기 전에 먼저 즐기려 합니다. 어렵게 공부하기 보다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지방의 문화원이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우리 문화(韓國文化)의 노소동락(老少同樂)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천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당이나 들판이나 마을 공터에서 뛰어 놀던 청소년들이 컴퓨터의 게임에 매달린다는 것을 병폐로 걱정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하기 보다는 즐길의 절제를 알려주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즐기는 문화에 우리 문화를 심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양의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변형된 말로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게임에 우리나라의 신화와 전설의 가치를 살려내고 서민들이 즐기던 아이들 놀이 문화를 재미있으면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보급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일이라면 우리의 정신문화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방의 문화원에서는 이것들을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마당을 펼쳐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펼치는 문화사업이 우리 문화, 그 중에서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업에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참여한다면 현재 문화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문화의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이결재 공주문화원 부원장

사상구에선 사상문화원이 최고 인기

부산 북구에서 사상구가 빠져나오면서 사상의 역사는 시작된다. 일제시대 때는 개펄만 가득했다는 이곳에 공장들이 밀집하면서 문화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현재에도 사상구 일대에 문화시설이라고는 극장 한 곳을 포함하여 사상문화원 정도다. 문화원이 처음 설립된 때가 1999년이니 지난 10년간 사상에서 소위 '문화' 하는 곳은 문화원 한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10년의 세월을 지켜본 이가 바로 김진홍 사상문화원장이다.

“원래 고향은 통영이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상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문화원이 설립되던 1999년부터 부원장을 맡아 했으니 각별한 관계였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원장직까지 맡게 되었어요. 따지고 보니 사상문화원과 11년이란 세월을 함께 했네요.”

김진홍 원장은 운영하는 사업체만 7~8개지만 어렸을 적부터 즐겼던 문화에 대한 갈망이 문화원으로 이끌었다. 특히 김 원장은 영화 보는 것을 즐겨 지금은 한 달에 서너 차례는 꼭 '극장구경'에 나선다고.

사상의 문화를 한발앞서 이끄는 문화원

부산 사상문화원



김진홍 사상문화원장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
 많은 문화행사가 열리는 부산이지만
 부산에도 문화의 불모지가 더러 있다.
 문화의 불모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뛰는 문화원, 사상을 찾았다.



“문화원장이라는 직책이 엄밀히 말해 사회봉사인 셈이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문화로서 봉사하는 셈이죠. 11년 동안 문화원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일이 힘들다거나 관두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늘 새롭고 또 즐거웠죠. 그런데다 사무국에서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직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아주 간단한 대답이 돌아온다. 늘 즐겁고 기쁘기만 하단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쫓겨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김 원장이 즐거운 것은 문화원으로 인해 사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부재하는 사상구에서 문화원이 더욱 돋보이는 것은 문화원의 이런 열정 때문이다.

사상전통달집놀이와 사상강변축제 등 즐길거리 한가득

사상에서 유명세를 타는 행사는 대보름에 열리는 ‘사상전통 달집놀이’와 ‘사상강변축제’다. 규모도 규모거니와 제대로 즐길 것 없는 사상구민으로서 반가운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사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행사가 커지다 보니 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해주셨죠. 낮부터 시작된 행사는 율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로 시작해 길놀이로 이어지고 본격적인 달집태우기로 행사의 흥을 더했지요. 달집의 규모가 28미터인데 전국에서 이만한 높이도 흔치 않을 거예요.”

임언수 사무국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여 있으니 긴장할 법도 한터. 임 국장은 어떻게 하면 문화원이 사상에 많은 문화혜택을 드리나, 그런 생각으로 요즘을 산다. 결국 모든 것은 예산 문제로 직결된다고. 이런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

지 방법을 만들고 또 시도한 것이 사상이다. 사상문화원의 경우 10여년 전 BC 카드와 제휴를 맺고 문화원카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용액의 1% 정도를 문화원 기금으로 내어놓아 잘 될 때는 1년에 삼사천 만원이 넘는 금액도 들어왔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금은 줄어들어 현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비영리단체로서 문화원기금을 모집하는 색다른 사례다.

사상구와 긴밀히 소통하며 부산시 전체로 뻗어나가는 문화원으로

사상문화원은 가까운 곳에 분원을 두고 있다. 사상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주례분원이 바로 그곳이다. 사상구청 3층에 위치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주례분원으로 옮긴 것이다. 80평에 이르는 강의실에서 사상구민은 마음껏 강좌를 즐기고 있다. 아무래도 사상은 역사도 짧고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문화원 사무국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소개를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 현대의 문화제시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며 사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사상문화원의 지상목표인 셈. “문화는 그 시대의 민족정신입니다. 문화가 없으면 민족이 사라지는 거죠. 민족이 위태롭다고 해도 문화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늘 생각을 다잡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되겠다, 더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저 뿐만 아니라 지방의 문화원장님이시라면 매일 같은 다짐일 겁니다. 앞으로 더욱 우뚝 서는 문화원이길 희망해봅니다.”

부산시에서 보면 문화적으로 열악한 사상구이지만 그래서 더욱 개척할 일이 많다고 문화원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한다. 문화원이 움직이면 사상의 문화가 움직인다. 사상 문화의 받침목, 사상문화원의 앞날을 지켜보자.



왼쪽부터 신경숙 간사, 김진홍 원장, 임언수 국장
(박경자 간사는 주례분원에서 근무중이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1차 종합토론회 시작
권역별로 여섯 차례 진행할 예정

지역문화 창조를 위한 New Design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차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가 열렸다.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실정의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 있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원장, 사무국장 등 전국단위로 개최하던 세미나를 이번 토론회와 연계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전문가, 문화원장 및 국장 등을 패널로 구성하였으며 통합교육 및 분입토론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인천, 경기를 시작으로 3~4월 중 6차에 걸쳐 종합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강의와 분입토론 및 종합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방문화원은 사회변화와 문화수요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고루하고 침체되었다는 이미지가 강하며, 지역거점으로서 스스로의 자성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1999년 중앙정부로부터 시·도지사로 관리·감독이 이양되면서 재정규모와 문화

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로 지역문화진흥사업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회는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권역별 종합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실정과 의견을 수렴,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문화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원이 가진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 균형 잡힌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개 권역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최종 종합계획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문화원이 각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원중장기발전방안』을 2010년대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행정, 정책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형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전국 지방문화원 권역별 세미나 일정

횟수	일정	개최장소	권역구분	문화원(수)
1차	3월 15,16(월,화)	서울 교육문화회관	인천, 경기	39
2차	19,20(금,토)	장성 백양사호텔	광주, 전남, 전북	41
3차	26,27(금,토)	칠곡 대구은행 연수관	대구, 경북	31
4차	4월 02,03(금,토)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	부산, 울산, 경남	37
5차	06,07(화,수)	유성 흥인호텔	대전, 충북, 충남	34
6차	16,17(금,토)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 강원, 제주	45
합계				227



▶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_세부일정표

시 간	1일차
13:00~13:50	[개회식]
14:00~14:50	[강의1] 문화트렌드 이해와 문화원의 역할 (통합)
15:00~15:50	[휴식시간] 20분
16:00~16:50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토론회] (통합) • 중앙정부 및 지자체공무원, 외부전문가 참여
19:00~19:50	[석 식]
20:00~20:50	[분임토론] 원장, 사무국장, 일반직원
22:00 ~	[자유교류] (원장, 국장, 직원)

시 간	2일차
07:30~08:30	[조 찬]
09:00~15:50	[강의2] (통합) 지역창조와 문화전략
10:00~10:50	[종합 발표] (통합) • 원장, 사무국장, 일반직원 각 주제 발표 • 설문조사 및 공지사항
12:00~12:50	[폐회식]
13:00~13:50	[오 찬] [자유 해산]

1. 회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2. 박광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3. 노정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사무관
4.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인사말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서도 원근각지에서 참석하신 문화원장님, 사무국장,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세미나 성공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시는 교수님과 문화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관계관에도 인사를 드립니다. 새봄의 시작과 함께 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세미나는 이제껏 개별행사로 진행해오던 원장연찬회, 사무국장연수의 형태를 바꿔 원장, 사무국장, 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소통과 단합분위기를 조성 문화원의 내실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미나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종합 토론회,는 문화부 관계관, 지방자치단체 문화담당과장, 문화계 관련 교수, 문화현장 전문연구자, 문화원장, 사무국장 등이 참석 지방문화원 발전 종합 계획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기회로 대단히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임을 감안 예산 집행 계획 단계부터 연합회와 협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손실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니 금년도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 등의 예산 지출이 예년보다 강화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첨단 디지털로 급변하는 사회이며 나아가 고품격화과 다문화사회로서 지방문화원의 문화사업도 시대에 맞게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만 일부 문화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기관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문화예술단체의 수가 1,000여개에 이르는 등 각 지역마다 여러 기관과 시설이 생겨나고,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수준이 향상되는 등 지역의 문화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밖에서는 국가가 지방문화원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지원을 십수년 하고 있음에도 문화원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는 이번 문화원 임직원 세미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문화원 발전의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를 확산시켜 외적으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계기를 만들고 내적으로는 문화원 발전의 기본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방문화원별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격려사

박광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을 맡고 있는 박광무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님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오신 지방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애쓰시는 여러 과장님들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권역별 종합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오늘은 6개 권역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기대가 더 큼니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여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나 종합적인 육성 발전계획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문화 창조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지방문화원 발전 TF팀을 구성, 그동안 여러 차례 워크숍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계획안」시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 시대변화에 따른 지방문화원 기능·역할 재정립 필요

돌이켜 보면, 지방문화원은 1947년 강화문화관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1951년 진주 밀양, 1952년 원주, 53년 울진, 54년 인천 천안, 55년 영월, 56년 수원 삼척 거창, 57년 용인 서산 여수 영암, 58년 청주 진천 순창 담양 제천, 그리고 1960년에 안동이 순차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문화원의 꾸준한 발전과정에서 60여년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20세기 초반 암울하던 우리 민족에게 생활 속의 문화의 중심축이며 민족문화의 산 증인으로 그 맥을 이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각 지역에 문예회관, 문화의 집, 특화문화시설 등이 속속 건립되면서 이들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걸맞게 문화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적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 향후 발전방향 (기능과 역할)

저는 문화원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각기 생활의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행복과 활기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문화원과 문화원 지도자들께서는 인생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게 주체들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돈이 있으며

부담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실버세대가 아니라 골드 세대의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인생 제3기 30년을 앞으로 시대와 생활권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지혜와 경륜을 펼치고 이끄는 확실한 역할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앞으로 급격히 달라지는 인구구조와 지역별 세대구성의 변이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경륜과 지혜와 역량을 겸비한 구성원으로서 당대의 부족한 고급 인력의 실질적인 중요한 충원 인적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복지를 창조하고 나눠주며 고급 인력 집단으로 당당하고 귀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며 주제적인 활동을 이끄는 중심에 문화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적 지원과 국가가 무엇을 하여줄 것을 기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아가 나와 동료들이 어떻게 당대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어떠한 지혜와 대안과 자원을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차원으로 관심과 행동을 옮겨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이 앞으로 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활력이 넘치는 중심문화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산어촌 등 지역과 여건에 따른 특성화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① 독자적인 고유한 지역문화 창출 (지역의 브랜드화)

- 지역의 문화원이 각기 그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창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성 있는 지역의 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 이것을 국내·외로 발산하는 문화 발신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능 강화

- 최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문화예술 교육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문화원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심화시키고 적극화해 나가야 합니다.

-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은 한국적 가치관과 도덕성 회복 및 사회병리현상의 치유, 그리고 문화예술적 감성교육을 통한 창의성 제고라고 하였습니다.

③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 최근 몇 년 전부터 지방문화원이 '실버문화학교',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새터민 문화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소외계층 배려 프로그램

등을 개설,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제까지의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계층 자체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앞으로 이들 계층과 다른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 예컨대 노인세대와 청소년세대, 이주여성과 그 가족 및 마을주민, 외국인 노동자와 일반주민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확충하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지역문화 창조를 위한 정보센터 역할

- 역사가 오래된 지방문화원은 많은 자료들을 소장·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지역적 특성을 찾고 장래의 전망을 생각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각 문화원들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⑤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위에서 제시한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추진·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관련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 문화예술시설·공간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치며

이상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원 안에 유능한 '문화기획자'와 '문화경영자'가 있어야 하고, 문화원은 이런 '문화일꾼'을 육성하고 확보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그러한 지도자와 경영자 기획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녀중앙을 연출한 중앙구 임대아파트단지의 어르신과 아주머니들의 사례, 자신감과 행동화와 연기로 보여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생생한 체험적 가치를 창조한 예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문화원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의 문화 창조역량 제고에 힘써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문화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꽃 피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각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문화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문화원의 회원관리 운영

회원이 문화원의 경쟁력이다



서산문화원은 1957년 창립해서 53돌을 맞았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메카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주요 발자취로는 1992년에는 전국문화원 간행물 품평회에 대상과, 2000년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우수문화원, 2001년도 문화기반시설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어 문화관 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2년도에는 중국의 대련시와 한중문화교류협정을 통해 두 도시의 문화예술과 교육인사, 청소년간의 상호방문, 그리고 학술연구와 공연행사 등의 해외문화교류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본원은 창립 이후 세 번의 이사끝에 모든 문화원의 꿈이자 바람인 원사를 신축하게 된다. 2001년에 889평의 대지에 연건평 570평의 원사로 이전하여 문화원이 있는지 없는지

도 모르는 서산시민들의 마음속에 문화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원사 3층에 170여평의 공간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의 역사와 자연, 생활문화, 문화재, 유물 등을 전시해 지역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사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외국인, 새터민 등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소외계층을 비롯해 사회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연간 40여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로 이루어지는 지역문화학교에 플룻 등 70여 과목 1,500여명이 참여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아동프로그램(키즈발레, 컬러믹스, 큐릭스, 어린이바이올린) 접수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자치단체 인구비율대비 문화학교 수강인원이 전국문화원 중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서산지역에는 문화원 뿐만 아니라 서부평생학습관, 서산시평생학습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석림사회복지관, 서산시체육센터 등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가 즐비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본원이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것은 1994년부터 시작한 지역문화학교의 경험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서산문화원의 든든





한 회원구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문화원은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1994년 15개 읍면동에 분원을 설치하고, 분원장을 임명해서 읍면동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현재 1,99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문화원 경쟁력에 근간이 되고 있으며, 문화원의 각종 행사시 읍면동의 분원장을 통해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반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연간 사업 중 “순회강좌” 사업을 계획하여 읍면동별로 분원장이 주축이 되어 15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며 문화원의 사업을 홍보하고,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강좌로 회원들과의 만남을 마련하고, 또한 순회공연과 순회전시회를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로 능동적인 회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회원조직의 중간관리자라는 분원장의 역할과 명분을 심어주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1983년부터 “스산의 숨결”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문화원의 소식과 다양한 문화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월간 2,500부의 월간지를 발간해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문화원, 관내기관 등에 발송하고 있으며, “문화유적답사”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이달의 문화인물기념행사”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회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어 실질적인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 참여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결속을 다

져나가고 있다. 또한 전통혼례와 제례행사 등 고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경회”와, “서예동아리 서산서도회” 등 문화원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체들과, 플룻 연주 동아리 “정플룻앙상블”, 다도반을 수료하고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선다회”, 문예창작동아리 “화요여성문화회” 등 본원의 지역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이 꾸준한 동아리활동을 원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가족 등록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원은 각종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원봉사자와 동아리활동 인원을 활용함으로써, 쌍방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원의 열악한 인력난 재정난을 덜고 사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회비만 내는 회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실질적인 도움까지 주는 서산문화원의 회원은 문화원의 근간이며, 금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배이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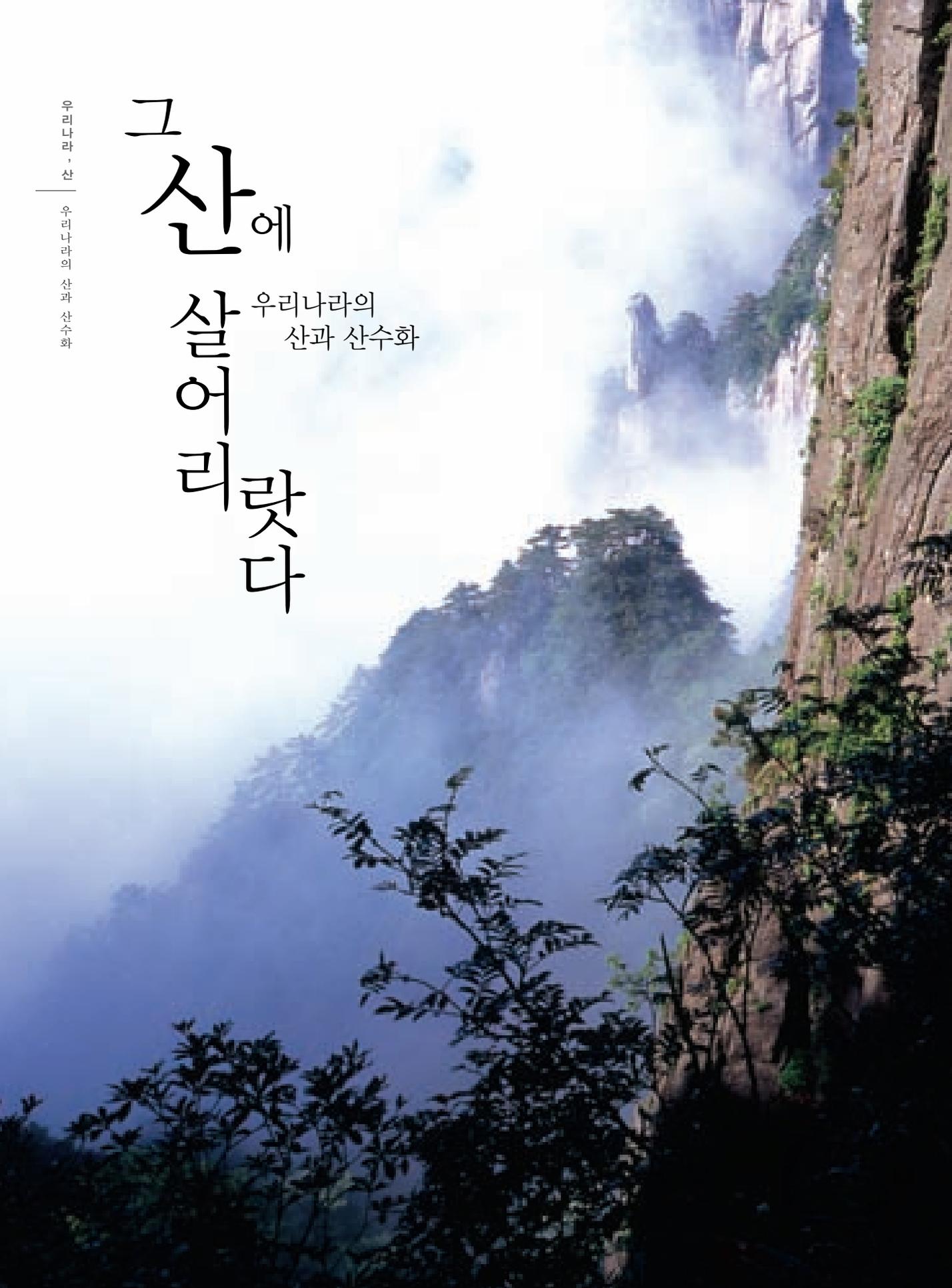
우리나라, 산

우리나라의 산과 산수화

그 산에

우리나라의
산과 산수화

살어리랏다





한국사람들 만큼 산과 가까이하며 사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듯이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오면 사방이 모두 산이다. 출근해도 회사 주변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산이고, 퇴근 길에도 산을 돌아 산을 뚫고 터널로 집으로 온다.

그런데 한국의 산은 노년기 지형에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최고봉이 북한에 있는 백두산으로 해발 2700여 미터이다. 남한은 육지 최고봉 지리산이 1915미터 정도이다. 히말라야나 안데스 같은 인간을 압도하는 산이 아니라 늘상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산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산이 낮은 것은 아니다. 옛날 중국말에 산은 높아야 신령스러운 것이 아니라 神이 살아야 신령스럽다고 했다. '신'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는 것, 요즘 말로 aura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산에는 숲이 울창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맑고 깨끗한 정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높아 수목이 자라지 않고 눈으로만 덮히면 신성하되 가까이 가기 어려운 두려운 존재가 된다. 중국에서도 소위 오악(五嶽)이라 하여 천하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신성한 다섯 개 산이 있었는데, 요즘 지리학에서 보면 모두 2000미터나 그 이하의 산들이 대부분이다. 오악 중 대표적인 중악 태산(泰山), 공자가 그 꼭대기에 올라 천하가 작은 것을 느꼈다는 태산도 높이는 1500미터 남짓이다.

산수화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다가 그 벽찬 감정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느끼는 산은 1500미터가 되면 충분히 높은 것이다. 이 정도 높이도 요즘은 사람들이 전부 길을 뚫고 계단을 만들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범석을 떨어 올라가기가 쉽다. 옛날 사람들이 1500미터 산을 오르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정도 산을 오르려면 수십리 전부터 그보다 낮은 산들을 여러 개 지나며 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 접근해야만 했다.

각설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산이 많은데, 또한 산세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최근 해외여행이 흔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다녀오는데, 그런 이들의 소감이 우리나라만큼 산수가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나라 금강산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중국까지 소문이 났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금강산을 가보고 싶어 하고 못가면 대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여 받아갔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빈번하다.

이런 아름다운 산수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산수화가 많이 그려졌음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산수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이미 등장한다. 고구려는 삼국시대이니까 중국으로 치면 육조시대이다. 육조시대에는 중국에서 산수화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하다. 산수화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다가 그 벽찬 감정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볼 때 그저 예쁘구나 하는 정도를 넘어, 자기도 모르게 “정말 기막히네!”라고 중얼거리는 수가 있다. 산수화는 육조시대에 이르러

이처럼 산수에 대한 감흥을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 없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다. 산수화가 예술로서 창작되는 것은 그저 예쁜 여자에게 감탄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인간과 자연의 깊은 교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철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산수화의 발달은 사실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고려 시대 이전까지는 자세한 연구가 어렵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서 그나마 자료가 있는 편이어서 우리나라 산수화의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소위 사대화가(四大畵家)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초기 세종대왕의 아낌을 받던 최고의 화가 현동자(玄洞子) 안견(安堅, 15세기)은 당시 산수화의 대가였다. 안견은 중국 북송 때의 대화가 이성(李成, 10세기), 곽희(郭熙, 11세기) 등의 소위 이곽파(李郭派) 산수화풍을 배워 스스로 독창적인 일가를 이루었다. 안견이 이룩한 회화의 양식을 안견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의 화풍을 따른 사람이 무척 많아 하나의 화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안견파는 조선초기를 지배했을 뿐 아니라 당시 무로마치 시대 일본의 수묵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현대의 6.25등 파괴적인 전란이 자주 일어나 안견의 산수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된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가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조선초기 최고의 서예가로서 여러 가지 예술에 뛰어났던 안평대군이 꿈에 복숭아밭(桃園)을 여행한 것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것이다. 이 작품에는 안평대군을 비롯한 세종대왕시절 집현전 학사들이십여명의 글이 붙어있어 당시 문화계의 모습을 대변하는 국보이기도 하다.

<몽유도원도>는 꿈을 그림으로 표현한만큼 산수의 형태는 비현

실적이고 기이하다. 이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왼쪽 끝의 현실세계에서 개울을 건너 오른쪽의 도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실과 꿈의 세계를 구분하는 개울과 높은 산들은 보통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경계를 상징한다. 이 관문을 통과해 만나게 되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은 주변이 높고 이상한 형태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조선후기 진경산수화의 창시자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은 안견과 달리 금강산, 북한산, 인왕산, 남산 등 우리나라의 실제 산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정선 이후의 실경을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라고 부른다. 이제 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정선의 <금강산도>, <만폭동도>, <인왕제색도> 등은 정선이 실제로 그곳을 여행하면서 스케치 하고, 친한 벗들과 시도 짓고 하면서 그린 작품들이다.

안견의 시대와 정선의 시대 이런 산수화의 차이는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바뀐 때문이다. 정선이 활동한 18세기 전반에는 조선에도 숙종, 영조 같은 뛰어난 임금이 나타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이런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전에는 쉽게 가지 못하던 금강산이나 여러 산천을 유람하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풍조가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이런 풍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국의 명나라에서 청나라에 걸친 문예사조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정선의 시대에는 문인, 학자, 예술가들이 전



정선 <인왕제색도>, 리움

에 비해 자유롭게 산천을 여행하면서 시와 그림을 창작하던 분위
기 속에서, 안건의 <몽유도원도> 같은 상상적 그림보다 실제 경치
를 그리는 진경산수화를 창작하게 된 것이다.

정선 보다 약 두 세대 뒤에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
년경)라는 대화가 출현하였다. 김홍도는 풍속화, 신선도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산수화의 대가이기도 하다. 김홍도는 정조대왕
의 아감을 받았는데, 1788년에는 정조의 어명으로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여행하며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다.

정조는 국정에 바빠 당시 유행하던 금강산 여행을 할 처지가 못되
었다. 당시는 교통이 나빠 금강산을 한번 다녀오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필요했다. 왕이 한달 이상 한양을 비우는 것은 당시로
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아끼고 신
임하던 화가 김홍도에게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그림으로 그려오
게 한 것이다. 아쉽게도 이때 김홍도가 정조에게 그려 바친 화려
한 채색에 십 여 미터에 이르는 금강산그림 두루말이는 나중에 화
재로 소실되었다고 전한다.

이 작품이 남아있더라면 안건의 <몽유도원도> 못지않은 볼거리
였을 것이다. 그러나 김홍도가 이때 그렸다고 전하는 금강산도 초
본들, 그리고 다른 진경산수화들을 통해 볼 때 그의 진경산수화는
정선에 비해 더욱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4대화가 중 막내는 오원(吾園) 장승업(張承
業, 1843-1897)이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醉畫仙)'으로 극
화되기도 했다. 장승업은 조선왕조가 멸망해가던 무렵 활약하였
는데, 시대의 이픔을 온몸으로 함께했던 예술가였다. 그는 어지러
운 시대에 태어나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떠돌았다. 다행히
추사 김정희의 제자 이상적의 사위인 역관 이응헌(李應憲)을 만나
예술가로서의 천분을 꽃피울 수 있었다. 이응헌은 당시 대표적 화
가들과 친분이 깊었던 예술 애호가였던 것이다.

장승업은 고아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이처럼 조선말기 예
술계의 핵심통이랄까, 예술계의 마당발이라 할 만한 사람을 통해
조선시대 회화의 정수를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명성왕후 민씨 집안, 고종(高宗) 등 당대 최고의 권력층의 애
호를 받던 대화가였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술과
기행, 예술에만 몰두하던 기인이었다. 그래서 장승업의 산수화는
비현실적이다. 그의 산수화에는 기이한 봉우리, 꿈 같은 선경, 혹
은 신비로운 골짜기가 표현되어 있다. 그의 산수화가 실제 모습을
그린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는 완전히 다른 점, 그리고 외면적인

산수화가 예술로서
창작되는 것은
그저 예쁜 여자에게
감탄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
인간과 자연의
깊은 교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철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승업 <방광망산수도> 부분, 리움

양식상 중국적인 면이 많은 점 때문에 비
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장승업의 산수화
는 현실세계를 냉엄하고 객관적으로 이
해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내
다가 마침내 외세에 의해 멸망했던 조선
왕조 말기의 세대에 대한 예술적 향기이
다. 마치 자폐아가 말을 잇듯이 장승업은
현실을 잊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승업이 도피한 세계는 답답한
자폐의 세계가 아니라 황홀하고 순수한
예술의 이상향이었다. 그의 이상향으로
의 도피를 비난하는 것은 당시를 지배했
던 권력자, 정치가에게 향해야 할 비난의
방향을 잘못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그 예술을 통해 기쁨을 얻고 현실의 모
순을 잠시나마 잊었던 감상자들을 비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준현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관

비나비나이다

에게 비나이다

산신

우리나라 산 숭배 전통과 산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산악숭배의 역사

한국은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 산악숭배 신앙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곧 산이다. 그래서 환웅은 이 세상의 중심인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 온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은 이미 고조선시대에 산신신앙이 널리 유행했음을 말해준다. 《후한서동이전》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하고 호랑이에게 제사 드리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단군, 주몽, 박혁거세, 견훤, 왕건, 이성계 등의 건국신화와 산신신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악숭배는 우리민족의 다양한 토착신앙 중에서도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산신신앙은 특히 신라에서 성행했다. 신라에서는 산신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인식을 하여 국가제외의 대부분이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산악에 국가제외를 정기적으로 지내게 된다. 고려 왕조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마다 오악명산에 제사를 지냈고 특히 고려후기에는 봄과 가을이면 경도의 송악산, 적성의 감악사, 진천의 태령산, 남원의 지리산, 광주의 무등산, 정주의 비백산 등에서 산천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산신신앙의 형태가 다양화된다. 국가적인 공동체 신앙 중심에서 개인신앙 혹은 마을신앙 단위로 확산되었다. 특히 조선 중기에 이르면 명산은 물론이고, 주, 군, 현 단위로 산악제를 주관하게 된다. 고대의 산악숭배 신앙은 집단 즉 국가, 부족, 마

을 단위 형태의 신앙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개인과 마을단위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을마다 산신당, 산왕당, 서낭당, 성황당 등을 만들어 산신을 숭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의 정상 혹은 중턱에 위치하던 제당도 마을과 가까운 산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산악의 신이 농경신적인 성격을 더하는 현상으로, 마을의 풍농과 개인의 기복, 기자, 치병 등을 비는 개인신앙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김태곤은 호남지역에서는 신수인 당나무 밑에 제단을 놓고 당산이라 부르거나 입석을 당산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동진제를 지내는 것은 산에 산신을 모신 당산의 관념이, 산이 없는 호남지역의 일부 평야지대에까지 연장된 것으로 산신신앙의 후기적 형태로 보았다.

호랑이, 산의 주인이 되다

최남선은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 로마의 이리처럼 조선에서는 신성한 동물의 첫째가 호랑이라고 했다.

그는 “호랑이는 조선 최대의 동물이며 조선인의 생활에 끼친 영향이 크니 그 중 신화, 전설, 동화를 통하여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들은 설화 세계 최고이며 호랑이 및 호랑이 설화에 대한 민족적 숭앙 또는 기호는 어느새 인지 다른 모든 이야기를 밀어내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을 호담국(虎談國)이라 할 만큼 범 이야기와 특수한 인연을 가진 곳이 되었고 이 때문에 세계로 향하여 설화의 조선색을 강렬히 나타내 보인 것이 다행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민족의 시조 이야기인 단군신화의 주인공은 곰이다. 우리는 웅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88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는 곰이 되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 호랑이가 되었다.

사실 단군신화 이후에는 곰에 대한 이야기가 자취를 감추다시피 되지만 호랑이는 한반도 산악의 생태적 혹은 상징적 동물로서 한민족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동물이 되었다.

《위서 동이전 예전》에서는 “항상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에서 도당제를 올렸다”고 한다.

오늘날의 산신도에서 흔히 볼 수 있듯 호랑이를 산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호랑이를 지칭하는 명칭도 산신(山神), 산령(山靈), 산군(山君), 산신할매, 산중호걸 등 산과 관련시켜 부르고 있어 산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랑이의 영험성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산악지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호랑이라면 능히 벽사를 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그래서 시집갈 때 신부의 가마 위에 호피를 씌워 재액을 방지했고, 신랑은 호랑이 발톱을 허리에 찼다.

호랑이의 위력이 잡귀나 액을 물리쳐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슬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벽사의 염원은 호랑이 삼재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호랑이가 삼재부에 나타나는 것은 맹수로서의 용맹성이 부적 속에 들어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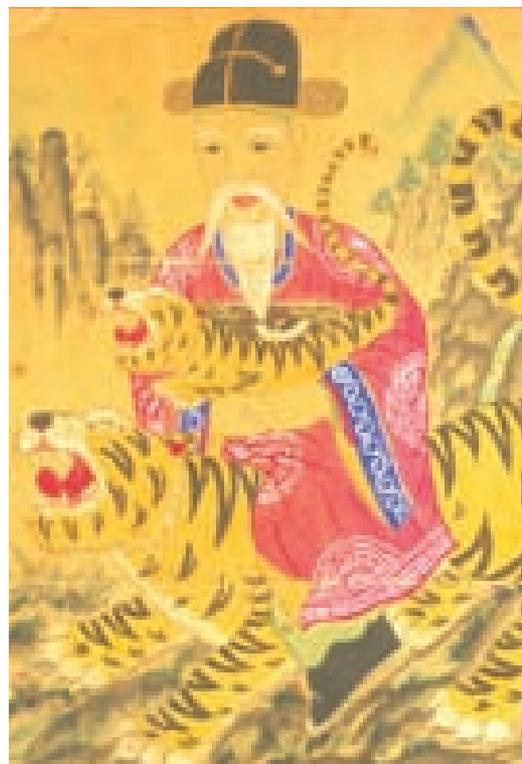
한국은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일찍부터

산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 산악숭배신앙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곧 산이다.

그래서 환웅은 이 세상의 중심인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아사달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점은 이미 고조선시대에도 산신신앙이 널리 유행했음을 말해준다.

구월산신령,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삼재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이다.

즉 한반도 산악을 지배하는 호랑이의 위력으로 재액을 죽히 물리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외경심은 호랑이를 마침내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산악 지대에서는 산신 혹은 산신을 보좌하는 영물로 인식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의 신앙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산신도에는 백호가 많이 나타나는데 흰색의 동물을 상서롭게 여기는 전통에 기대어 신성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라진 호랑이, 살아 있는 산신령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에는 호랑이 14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고대 시대부터 한반도 전역에 호랑이의 개체수가 많았음을 이 벽화가 말해주고 있다.

《증헌문헌비고》, 《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호환(虎患)이나 호랑이 사냥 등의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범에게 물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굿이나 호탈굿을 했을까.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사람의 사체를 거두어 호식장이라는 장례를 치루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시신을 수습하여 화장을 하고 그

위에 돌무덤을 쌓고 맨 위에 시루를 얹어 놓는다.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의 하나가 마마와 호환이라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으면 굿에서 호구굿과 범굿을 해서 천연두와 호환을 막고자 했겠는가. 그야말로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득실거렸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던 것이다.

호환이 너무 많아 하다못해 조정에서는 착호군(捉虎軍)을 편성하여 호랑이 사냥까지 했다.

이렇게 온 산야를 호령하던 호랑이는 일제에 의해 해수구제란 명목으로 공공연히 사냥되었고,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아마모토 정호군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획되었다.

결국 남한에서는 1924년 1월 21일 전남에서 의 6두가 포획된 것이 마지막 기록(월간조선, 1926)이 되었다. 비록 한반도 산악을 호령하던 호랑이는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아직도 산악을 숭배하고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호랑이는 사라졌으나, 산신령은 아직도 산악 곳곳에서 우리네 삶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남성 산신과 여성 산신

단군신화에서 단군이 산신으로 좌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최초의 산신은 남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신라시대에 들어서서는 대부분이 여성 산신으로 나타난다.

선도산의 산신, 영취산의 산신, 김유신을 보호했다는 신라 3산의 산신 등은 여성 산신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다시 남성형 산신이 우월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후로는 줄곧 남성 산신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여성 산신이 우위에 있었는데, 신라 제2대 남해왕 차차웅이 그의 누이 아로(阿老)로 하여금 제를 주관하게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제자 역할을 여성이 담당할 것파도 관련이 있다.

현재도 산신마누라, 산신아기씨, 부군아기씨, 산신할머니로 여성 산신을 모시는 곳이 있어 그 잔영은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신은 대부분이 남성형이고, 여성형 산신은 찾아볼 수조차 어렵게 되었다. 산신의 형상을 그린 산신도를 살펴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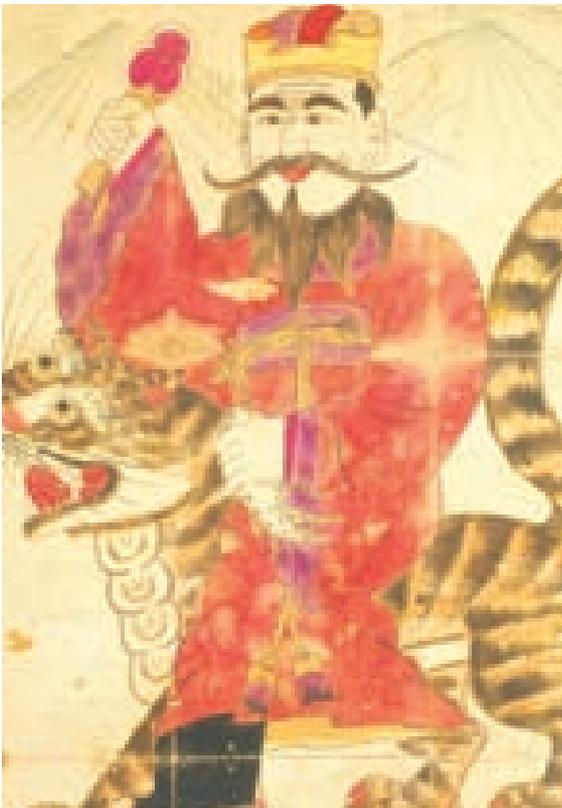
이렇듯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외경심은 호랑이를 마침내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산악 시대에서는 산신 혹은 산신을 보좌하는 영물로 인식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의 신앙 대상으로 된 것이다.

대부분은 남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신도에서 남성형 산신은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근엄한 판관의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호랑이를 탄 신선으로 혹은 소나무 아래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책을 든 학자의 풍모를 하고 있는 산신도 있다.

이렇듯 산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령으로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기복을 책임지며, 사찰의 산신각에서 혹은 무신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요즘은 도심 속에서도 산신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제의가 적극 수용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업의 번창,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자녀의 학업성취 및 출세 등 공동체의 소망을 제의에 담아내어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산신은 자동차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 까지도 해야 하니 그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닐 듯 하다.

태백산신령,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우리나라, 산

산의 숨은 청소부 · 버섯 이야기

산의 숨은 청소부, 버섯 이야기

버섯은

전세계에 5천 종 이상이 자라고 있으며,

그 중 한국에는 발견된 것만

약 1천여 종의 버섯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버섯이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동식물의 사체인 유기물을 분해하고

무기물로 환원하는 자연계의 순환고리 역할을

균류인 버섯이 담당해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균류(곰팡이)의 분해작용이 없다면,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을 것이다.

담배 피우는 버섯

내가 처음 버섯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말불버섯 때문이다. 생긴 것도 그렇거니와 포자를 방출하는 말불버섯의 모습은 자연계의 신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흔히 말불버섯은 울퉁불퉁한 표면의 돌기와 포자를 내뿜는 특성으로 인해 독버섯이란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긴 모양이나 습성이 남다르긴 해도 말불버섯(말의 거시기처럼 생겼다고 말불버섯이다)과 말징버섯(말징처럼 생겼다고 말징버섯이다) 등은 유균일 때 얼마든지 식용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식용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성숙하면 자실체에서 포자를 방출하게 되므로 먹을 수 없는 버섯이 된다. 말불버섯은 속칭 '담배 피우는 버섯'으로 불린다. 버섯이 담배를 피운다고? 이는 말불버섯이 포자를 방출하는 모습을 보고 붙인 별명이다. 서양에서는 말불버섯의 포자 방출이 여우가 방귀를 끼는 것과 같다고 하여 여우방귀(Lycopodon)버섯이라고도 불렀다. 말불버섯이 포자를 방출하는 모습을 보려면 처음 정공이 열릴 때나 빗방울 혹은 물방울이 기본체에 떨어질 때, 심한 바람이 불 때가 가장 유력한데, 이 때를 맞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습성을 잘 아는 버섯 전문가들조차 포자를 방출하는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

긴대말불버섯 또한 포자를 방출하는데, 자루가 말불버섯보다 길어서 포자를 방출할 때의 모습은 마치 굵은 담뱃대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다. 생긴 모양은 자루 끝에 둥그런 기본체가 달려 있고, 윗부분은 말불버섯과 달리 약간 밋밋하고 둥그란 편이다. 말불버섯보다 보기가 쉽지 않고, 유생일 때는 말징버



1

2



섯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인다. 사실 긴대말불버섯은 버섯도감이 나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종으로 아직 정식 이름도 얻지 못한 버섯이다. 말불버섯과에 드는 말징버섯은 다른 말불버섯과는 달리 피침형 돌기가 나지 않고, 유균일 때 윗부분이 맛맛하고 둥그스름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서양에서는 '대머리버섯'으로도 불린다. 자라면서 말징버섯은 표면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생겨 나면서 얇은 외피가 벗겨지고 누런 스펀지 모양의 기본체를 드러낸다. 바람이 불면 드러난 기본체의 포자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날아간다. 말불버섯과에는 말불버섯, 긴대말불버섯, 말징버섯 외에도 좀말불버섯, 비늘말불버섯, 너도말불버섯, 약취말불버섯, 참쌀떡버섯 등이 있다.

담배를 피우는 대신 방귀를 끼는 버섯도 있다. 물론 진짜 방귀가 아니라 포자 구멍을 통해 포자를 날리는 모양을 두고 꼭 방귀를 끼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도 방귀버섯이다. 방귀버섯 가운데 가장 흔하게 눈에 띄는 테두리방귀버섯은 숲속의 낙엽 썩은 부식토에 자생한다. 자실체는 둥그런 공 모양이며, 자실체가 터지면 외피는 별모양 혹은 꽃잎 모양으로 갈라져 기본체를 감싼다. 별모양 외피

말불버섯이 포자를 방출하는 모습을 보려면 처음 정공이 열릴 때나 빗방울 혹은 물방울이 기본체에 떨어질 때, 심한 바람이 불 때가 가장 유력한데, 이 때를 맞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습성을 잘 아는 버섯 전문가들조차 포자를 방출하는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





4

에 둘러싸인 기본체는 꼭 도토리처럼 생겼으며, 처음 백색에서 점차 암갈색으로 변한다. 기본체의 꼭지 부분에 포자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을 통해 방귀를 꿰듯 포자를 날린다. 비슷한 버섯으로는 목도리방귀버섯과 꼬마방귀버섯, 먼지버섯 등이 있으며, 포자를 방출하는 말불버섯과는 이웃사촌이다.

버섯에 나무와 사람의 뇌가 들어 있다?

버섯 가운데 가장 화려한 녀석을 꼽으라면 단연 노랑망태버섯이다. 산중 숲속이나 대숲, 정원 등에서 자라는 노랑망태버섯은 갓이 올라오고 나면 노란색 망사 모양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균망(菌網)을 펼친다. 노랑망태버섯이 펼친 노란색 균망은 멀리서 보면 흡사 노란 망사 스커트를 입었거나 망토를 걸친 모습을 띤다. 그러나 노랑망태버섯의 유균은 말뚝버섯처럼 둥그런 알 모양이다. 이 유균이 자라면서 위쪽이 갈라져 갓과 대가 솟아나오고, 위에서부터 균망을 펼치며 아래로 내려온다. 흔히 빛깔과 모양이 화려한 버섯은 독버섯으로 알고 있으나, 노랑망태버섯은 식용버섯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는 편이며, 주로 중국에서 약취가나는 기본체를 씻어버리고 수프에 이용하는데, 최고급 요리로 친다.

버섯은 그 모양과 빛깔이 실로 다양하다. 버섯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갓과 대를 갖추지 않은 버섯들이 많다. '복균류'에 드는 알버섯이나 황토색어리알버섯, 흰찐빵버섯 등이 바로 그런 버섯에 속한다. 이런 버섯은 자칫 돌멩이나 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노랑망태버섯이나



5

1. 황금그늘버섯
2. 긴대말불버섯의 포자방출
3. 때죽도장버섯
4. 노란대발버섯
5. 노랑망태버섯
6. 콩버섯
7. 먹물버섯

망태버섯, 말뚝버섯 또한 유균일 때는 '알'처럼 생겼다. 버섯의 오묘함과 신기함은 버섯을 잘랐을 때의 단면도 모습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말뚝버섯의 단면도는 대부분의 버섯 전문가들조차 감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말뚝버섯은 숲속의 고목이나 그 주변, 정원, 개활지의 숲 등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자루가 올라오기 전, 유균의 모습은 오리알이나 달걀처럼 생겼다. 유균의 크기는 5cm 안팎이고, 겉모습은 흰색을 띤다. 비가 내리고 나면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오듯, 암녹갈색의 갓과 대가 올라오는데, 올라온 갓과 대는 10~15cm까지 자란다. 사실 말뚝버섯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신비는 유균 속에 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것을 세로(뿌리를 기준으로)로 잘라보면, 장차 갓과 대를 형성할 자실체가 들어 있고, 그 주위를 암녹색과 투명한 점액질이 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의 빛깔과 무늬는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알 모양의 유균 속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 있는 듯도 하고, 기하학적인 우주 생명체가 도사리고 있는 듯도 하고, 노른자위에 꽃이 핀 달걀을 보는 듯도 하다. 이것을 다시 가로로 잘라보면, 또다른 신비스러운 모양이 나타난다. 하얀 태양이 하얀 불꽃을 내뿜는 모양이랄까.

버섯계의 공룡알이라 불리는 흰전뿔버섯 또한 신비함이 가득한 버섯이다. 흰전뿔버섯은 공룡알처럼 생긴 자실체를 잘라보면 호두알 모양의 연갈색 또는 암녹색 연골질이 투명한 젤라틴질에 덮여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생물시간에 보았던 '인간의 뇌' 단면도와도 흡사하다. 그런가하면 생긴 모양이 감자처럼 생긴 황토색어리알버섯 속에는 연탄이 들어 있다. 물론 이 연탄은 진짜 연탄이 아니라 흑색의 포자다. 이 흑색의 포자는 처음 물반죽을 해 놓은 것처럼 물기를 머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기가 사라져 메마른 상태가 된다. 독버섯이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독버섯의 진실

우리는 흔히 이상하게 생겼거나 화려한 빛깔을 자랑하는 버섯을 무조건 독버섯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화려하기로 소문난 노랑망태버섯은 최고의 식용버섯으로 간주되며, 이상하게 생겼거나 흉하게 생긴 알버섯이나 능이, 싸리버섯 등도 귀한 식재료가 된다. 반대로 갈황색미치광이버섯같은 것은 모양이나 빛깔이 평범해서 먹어도 될 것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 치명적인 독버섯이다. 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노란다발버섯도 생긴 것은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역시 치명적인 맹독버섯이다. 또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독버섯은 곤충이나 달팽이가 갓아먹은 흔적이 없다는 것인데, 독성의 저항력이 다른 벌레가 먹는 독버섯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사실 식용 유무에 따른 버섯의 구분은 식용버섯과 약용버섯(26%), 식용불명(64%), 독버섯(10%) 등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때로 유균일 때는 식용이었다가 자라면서 독버섯이 되는 것도 있다. 문제는 육안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용이 확실한 버섯이 아닌 이상 채취,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독버섯 중에서도 독성이 강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버섯으로는 독우산광대버섯과 마귀광대버섯, 노란다발, 알광대버섯, 화경버섯, 갈



6



7

황색미치광이버섯 등이 있다. 먹으면 죽거나 신경이상, 환각을 동반하는 버섯들이다. 그동안 버섯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버섯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노란다발이다. 노란다발은 봄부터 가을까지 침엽수나 활엽수 등의 그루터기, 고목 등에서 자라는 황갈색 혹은 유황색 맹독버섯이다.

노란다발을 섭취했을 경우 5시간 이상이 지난 뒤 혀가 마비되면서 구토와 경련이 일어나 결국 의식불명이 된다. 심할 경우 의식불명인 상태를 넘어 사망에 이른다. 마귀광대버섯도 대표적인 독버섯이다. 마귀광대버섯은 광대버섯류 중에 가장 큰 대형종으로 갓 크기는 작게는 5cm, 큰 것은 무려 25cm에 이른다. 처음에 마귀광대버섯은 구형으로 올라오는데, 갓 표면에 흰색의 외피막 사마

귀 파편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갓의 빛깔은 연갈색, 회갈색, 황갈색 등을 띠며, 대의 위쪽에 흰색의 턱받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귀광대버섯을 먹게 되면 환각, 환청, 환시가 나타나며, 구토와 복통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복용량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독우산광대버섯도 독성이 강해 영어로 '죽음의 천사'(destroying angel)라는 별칭이 붙었다. 독우산광대버섯에 중독되면, 우선 6시간 이상의 잠복기간을 거친 뒤, 구토와 복통, 설사, 탈수현상이 시작되면서 며칠에 걸쳐 신장과 간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죽게 된다. 특히 독우산광대버섯의 아미톡신(amatoxin) 성분은 청산가리의 수십 배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생일 때는 식용이었다가 자라면서 독버섯이 되는 것도 있다.

먹물버섯이 바로 그렇다. 먹물버섯 중에서도 두엄먹물버섯은 술을 마시고 먹었을 경우 혹은 버섯을 먹고 술을 마셨을 경우 수족마비와 구토, 혼수상태, 호흡장애, 복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감자처럼 생긴 황토색어리알버섯, 살충성분이 있다는 파리버섯, 사슴뿔처럼 생긴 붉은사슴뿔버섯, 갓 표면이 붉은색을 띠는 냄새무당버섯, 갓에 상처가 나면 백색 유액을 분비하는 노란젓버섯 등 숲에서 흔히 만나는 버섯들도 독버섯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용한 시인, 여행작가

21C 자원관리를 위한 도구로서의 숲해설



해설이라는 용어는 공적인 봉사를 의미한다. 해설은 최근에 문화적인 한 분야가 되었으므로 정확한 뜻을 사전에 꼭 의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몇 가지 진부한 의미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의미 즉 자격 있는 언어학자가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 법적인 기록에 근거한 해석이나 심지어 꿈이나 징조를 신비스럽게 설명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역사의 유산을 즐기거나 볼 수 있는 보물이나 성지를 광범위하게 보존하고 있는 장소, 즉 국립공원이나 기념관 도·시립 공원과 전쟁 유적지, 공적·사적 소유의 역사적 건물들 그리고 크고 작은 박물관들을 방문한다.

만일 방문객이 위에서 언급한 어떤 장소를 선택하여 방문한다면, 그 방문객은 정규교육기관인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어떤 면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종의 선택적인 교육과 접하게 된다. 왜냐하면 방문객은 신비한 그 방문에서 자연의 작품이건 혹은 인간의 무형 또는 유형 작품이건 간에 사물 그 자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문객이 어떤 산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때, 그 산에 대하

숲 해설 프로그램 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보람이 있는 숲 해설을 위해서는 장소 및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여 아무리 자세히 잘 설명된 책이라 하더라도 방문지의 그 느낌 자체를 대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리산 국립공원의 가장자리에서 서서 장엄한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다보면 그 어떤 사람도 거대한 지리산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양되어짐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수천 명의 자연주의자들과 역사가들이나 고고학자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일종의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을 원하는 방문객들에게 영감이나 또는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감각으로 미처 감지하지 못한 정신적인 미를 보여준다. 해설은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숲 해설가는 1999년 산림청에서 그간 산발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를 숲 해설가로 공식 사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현장에서 숲 해설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방문객의 대부분은 새로운 경험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워하며 숲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 졌다고 한다. 숲해설을 통하여 기존의 숲을 찾는 숲 탐방문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숲 해설의 내용은, 숲은 하나의 생태계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구성원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숲으로 대표되는 자연환경, 숲과 연관된 인간 활동에 따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숲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 인자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및 토양, 물, 공기, 수목 등이 숲이라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숲과 인간과의 상호 관련성으로 공존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자연과 단절된 도시 생활로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 속의 자연을 숲에서의 체험으로 숲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숲과 자연에 대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숲 속에서의 체험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재잘재잘 지저귀는 산새 소리, 휘이~ 하고 나뭇잎 사이를 파고드는 솔바람, 다양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나무의 냄새, 수많은 야생화, 숲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을 관찰하고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숲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오감(五感)이 살아나는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숲 속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숲해설가와 함께 숲을 거닐면 온 몸과 마음으로 숲을 느낄 수 있다.

숲 해설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숲해설가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해설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흥미 있는 숲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설가 자신의 성격 및 흥미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더욱 신경을 써서 적절한 기법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부단한 자기 연마와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해설의 기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한다.
- ②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절제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직접적인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④ 해설가가 직접 체험하였던 일화나 경험담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⑤ 체험활동을 통하여 느낀 감동을 나눈다.

⑥ 피드백은 중요한 요소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숲 해설 프로그램 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보람이 있는 숲 해설을 위해서는 장소 및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주어진 장소를 답사하면서 대상에 대한 조사 및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해설요소를 선정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먼저 숲 해설의 목표이다. 숲 해설가는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설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어린이들이라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하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처럼 목표가 설정되면, 설정된 목표대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해설프로그램 내용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숲 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린이들이건 어른들이건 간에 숲 속에서의 새로운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숲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숲 속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인식하여 자연과 숲에서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② 주제 선정이다. 일반적으로 숲해설의 주제는 숲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와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숲과 인간과의 상호관련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햄(Ham, 1992)에 따르면, 좋은 주제의 조건은 첫째, 짧고 간결하며 완결된 문장으로 작성하고, 둘째,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만 포함하고, 셋째, 해설의 총체적인 목표를 나타내고, 넷째, 구체적이어야 하며, 다섯째, 참가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사례들을 열거하였다.

- 생물 종을 보존하는 것은 생명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 모기도 자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땅 속에는 놀라운 배수장치가 숨겨져 있다.

③ 숲 해설 장소의 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설프로그램 진행코스의 거리, 소요시간, 해설 지점, 주변 여건, 역사적 사실, 위험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예비답사가 중요하다.

④ 숲 해설프로그램 참가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숲 해설프로그램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 직업 그리고 그 집단의 기대감에 대하여 파악하여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⑤ 다양한 요인들이 파악되면 해설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구성하고 참가자들의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시간적인 순서를 정하고 시간에 따른 장소에서 해설할 내용과 체험도구 및 보조재사용 등을 고려하여 잘 작성해야 한다.

⑥ 위의 숲 해설을 잘 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지막은 평가부분이다. 해설가는 해설프로그램을 끝나치고 나서 더 나은 숲해설을 위하여 검토하고 보완해 갈 사항들을 정리하여야 일이 사후평가다. 숲해설 프로그램 평가방법에는 해설가 스스로 하는 자기진단 평가와 프로그램 참가자에 의한 평가 그리고 동료 및 관리자에게 의한 평가 등이 있다.

숲 해설가의 기본자세는 숲해설을 진행하는 해설가들이 필수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내용이다. 숲해설가는 직접 자신이 체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설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안내하여야 한다.

숲해설가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해설가는 참가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

숲해설가는 숲해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장에 존재하는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설을 하여야 한다. 해설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숲 해설가는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를 사전 답사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숲해설을 바람직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해설 프로그램 참가자들보다 먼저 현장에 가 있어야 한다.
- ② 참가자들과 빨리 친숙해지기 위하여 프로그램 시작 전에 참가자들과 가볍게 인사한다.
- ③ 시작과 끝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이끌어 가되 프로그램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 ④ 모든 참가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해설한다. 어려울 때는 마이크로 폰을 이용한다.
- ⑤ 가능하면 항상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프로그램 진행시에 가급적이면 앞에서 참가자들을 안내해야 한다.
- ⑥ 독사, 독충, 독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해설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만 틸튼이 제시한 자연해설에 있어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6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여기 해설의 여섯 가지 원칙이 있다.
 - 첫째, 개인 혹은 방문객의 내면에 있는 것을 나타내 주거나 묘사할 수 없는 해설은 쓸모가 없다.
 - 둘째, 정보 자체는 해설이 아니다. 해설은 정보에 근거한 표현이지만 둘은 완전히 다르다. 모든 해설은 정보를 포함한다.
 - 셋째, 해설은 전시된 자료들이 과학적이건 역사적이건 혹은 건축적이건 간에, 여러 예술들을 한데 묶는다. 예술도 어느 정도는 가르칠 수 있다.
 - 넷째, 해설의 주요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극시키는 것이다.
 - 다섯째, 해설은 부분보다는 전체를 표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만 하고 한 면 보다는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 여섯째, 어린이들(가령, 12살까지)을 상대로 하는 해설은 어른을 상대로 하는 해설학과 섞여져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내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삶의 큰 보람을 느꼈다. 산이나 물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멀리함으로써 어울리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연과 어울려 자연의 일부로 함께 살아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는 자연을 대상(對象)으로 바라보는 서구의 문화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환경해설가들은 자연을 대상(對象)으로 바라보는 허무맹랑한 시각이 아닌 자연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국립공원과 산림지역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21세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호는 이러한 지역들과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즉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 열쇠다.

자연의 일부로서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리기관의 소중한 자원 및 인간 관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해설을 자원관리를 위한 도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파괴하여 오염되고 깨뜨려진 숲과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과 환경을 그들의 삶의 조건으로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숲과 자연은 우리가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온전한 상태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립공원과 산림지역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21세기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자원의 보호는 이러한 지역들과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즉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 열쇠다. 이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해설이다.

마음속 깊이 “해설을 통해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 감상하고, 감상을 통해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해설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조계중 국립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옛책(古書)의 향기를 맡다



책속에서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책의 향기를 맡아 보려고 코를 드밀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책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책을 통해 얻는 마음의 양식, 샘솟는 지식 등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살찌게 하는 향기로 비유되는 표현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된다. 그렇다고 모든 책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책을 보는 심안이 열려야 맡을 수 있다는 옛책(古書)의 향기는 선인들의 고결한 정신을 읽는 자양분으로서 향기중의 으뜸이라 하겠다.

모든 책은 현책이 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다.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현책이 되는 태생적 결과다. 이런 모든 현책 중에 딱히 정한 기준은 없지만 고서로 불리는 책들은 수집가들이 탐을 내고 소장하고자 하는 열망에 이사람 저사람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들고 도는 책을 쫓아 추적의 대상이 된다. 고서의 모체인 책은 원래 한자의 冊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것은 책이 자료로서 대가지나 나무였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대가지나 나무에 기록한 다음 이를 가죽 끈으로 엮었는데 이와 같은 모양이 冊자로 발전한 것이다.

책은 도서(圖書)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주역의 하출도(河出圖) 낙출서(洛出書)에서 비롯되었다. 거북이 등(背)과 용마(龍馬)에서 신비스런 기록을 찾아내서 주역의 괘(卦)와 정치의

이론을 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이라는 말은 형태적으로는 책(冊)이요 내용적으로는 도서(圖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책이란 이렇듯 처음부터 내용이 심오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책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사상, 감정을 나타낸 글이나 그림을 종이에 인쇄하거나 적거나 하여 그 여러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꿰맨 물건을 통틀어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잡지나 팸플릿(pamphlet) 또는 개인의 일기장도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의 현대적 개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첫째, 용이하게 펼쳐볼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목적을 지닌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분량이 있어야 한다.

넷째, 속장과 그것을 보호할 표지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책은 출판되어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비정기 간행물이어야 한다.

일곱째, 인류의 사상, 행동, 경제 등 모든 인간의 지적인 활동, 기록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중에서 일정한 분량이 문제가 되는데 1964년 파리(Paris)에서 개최된 제 1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권고」를 보면, “책(서적)이란 국내에서 출판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소한 49페이지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유네스코의 통계를 위해서 49페이지 이상을 책으로 계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네스코의 통계를 위한 권고일 뿐 모든 책의 정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9페이지 이하가 책이 될 수 없다면 수많은 고서 가운데서 책의 범주에 들 수 없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책 중에서 고서를 구분할 때 책의 요건인 분량보다는 비교적 가치가 있으면서 오래된 책을 고서라 하고 그 밖의 것은 현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고서동우회에서는 “1959년 이전에 출판된 책을 고서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실정으로 그때까지 출판된 책이 도서관이나 그 밖의 수집가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가 없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렇듯 고서가 1959년에서부터 그 수백 년 전에 출판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고서는 아니다. 오래된 고서를 귀중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희귀본이라고 해서 드물게 보는 고서요. 둘째, 귀중본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화재로 다루는 고서요. 셋째, 보물이라 해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고서요. 넷째, 국보라고 하여 고서로서는 나라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중요한 책이다. 이같이 국보급의 고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의 역사가 빛나는 동시에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수집의 역사가 길어 많은 책을 갖고 있고 남들에게 책 수집가로 알려져 있지만 변변한 희귀본 한권 없는 평범한 애서가에 불과하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취미삼아 책을 수집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열정적으로 책을 수집한 것을 부인 못하고 남들보다 금전적으로 많은 돈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책을 구입하는데 일정 금액을 드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집에만 급급했지 나만의 색깔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쉬움이 많았다.

그나마 많은 책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기 간행물 창간호 들이 나의 색깔을 조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고서 수집가 보다는 책 수집가라고 자칭하며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책에 있어서 신간서(新刊書)를 뜻한다면 고서는 뿌리라 할 수 있다. 고서는 영원히 살아남고 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영양소를 공급해준 책이다.

보다 새롭고 훌륭한 신간서를 내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고서에 대한 인식이 드높을 때 그만큼 훌륭한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고서를 보다 더 아껴야 하고 좀더 잘 활용해야 하고 보다 더 그 가치를 높여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다. 이렇듯 중요한 우리나라의 고서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오래된 고서가 많다는 것, 둘째는 한글로 표기된 책이 있다는 것, 셋째는 우리나라의 특색이 드러나고 활자본과 필사본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고서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행도구 즉 활자별 분류에 대해서 얘기 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고서는 대부분 한자로 된 목판본이 아니면 나무 혹은 금속활자로 찍어낸 활자본과 필사본 들이다. 먼저 활자본의 전단계인 필사본을 살펴보면, 사본(寫本)은 인쇄된 책보다 역사가 길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거의 사본으로 책을 만들었고 이것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명되었다.

사본은 판본(版本)과 같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출판이 아니어서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다. 생각이 구체적이고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본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고서 중에 필사본이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 인쇄된 고서를 말하는 판본은 필사본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지녔다. 판본은 하나의 책판(冊版)으로 같은 내용의 책을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다. 사람의 손으로 쓰는 필사본은 오늘과 내일의 글씨체가 다르고 세련미가 다르겠지만 판본은 책판을 잘 간수하기만 하면 언제 인쇄해도 같은 모양의 책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현대와 비교한다면 판본을 인쇄하기 위한 책판은 지형(紙型)과 같아서 초판을 찍고 얼마 있다가 중쇄를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해 놓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은 고려시대인 1251년에 완성된 것인데도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중쇄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독서의 보급이라는 뜻에서 본다면 판본의 발생은 혁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판본에는 목판본과 활자본이 있는데 먼저 목판본을 살펴보면, 목판은 각판·책판·판목으로도 불린다. 목판의 제작과정을 보면 우선 판각용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진을 빼고 평면으로 다듬는다. 그리고 새길 내용을 쓴 필사본(筆寫本: 板下本이라 함)을 만들어 나무판에 거꾸로 붙이고, 각수가 도장 파듯이 새기는 것이다. 이러한 목판에 먹칠을 하고 종이를 놓고 말춤이나 머리카락 같은 몽치로 문질러서 찍어 내어 제본한 것을 목판본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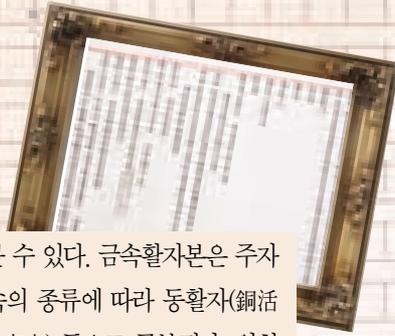
우리나라 인쇄술은 목판인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목판인쇄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삼국 시대에 불교경전이 전래되어, 그 유통을 위한 필사가 성행하



었는데 필사의 방법이 목판인쇄로 발전하면서 많은 경전이 사찰을 중심으로 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목판인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출현으로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목판인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다라니경은 1966년 10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가탑 2층 탑신부 사리공(舍利孔)에 봉인되었던 금동사리의함(金銅舍利外函)속에서 발견되었다. 이 경은 도화라국(觀貨邏國)의 사문(沙門)인 미타산(彌陀山)이 측천무후(則天武后) 말년 즉 704년경에 한역한 것인데,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한역되자 바로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성덕왕 5년(706)에 신문왕비(神文王妃)인 신목태후(神睦太后)와 효소왕(孝昭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사리(佛舍利)와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황복사(皇福寺) 석탑의 2층에 안치(安置)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활자본은 한 자씩 조각 또는 주조(鑄造)한 활자로 원고에 따라 식자(植字)한 활자판에서 찍어낸 책이다. 활자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마멸될 때까지 여러 책을 간행할 수 있으므로, 목판에 비하여 경비와 시간이 절약되므로 조선시대에는 많은 종류의 활자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활자는 그 재료에 따라 금속활자, 목활자, 도



활자(陶活字)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속활자본은 주자본(鑄字本)이라고도 하며, 금속의 종류에 따라 동활자(銅活字), 연활자(鉛字本), 철활자(鐵字本) 등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활자, 특히 금속 활자는 보통 15만 자에서 많으면 20만 자를 만들어야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사로이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한두 번 민간에서 만든 금속 활자를 나중에 정부에서 사들인 일이 있으나 이것은 특별한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금속 활자로 찍은 거의 모든 책은 나라에서 출판한 책이므로 호화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확하다 할 수 있다. 활자로 찍은 책은 그 활자를 만든 연대가 뚜렷하여 간행 연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재미자로 찍은 책이면 재미자가 1403년에 만들어져서 1420년에 경자자로 바뀌었으니 정상적이라면 그 사이에 출판된 책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 활자로 인쇄된 고서는 나라에서 필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고서로서는 격이 높은 내용일 수 있다.

나라의 활자로 개인의 저작을 출판한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라의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출판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의 있는 인물이었다면 그 책 또한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듯 책을 출판하는데 있어서 활자 출판이나 목판 출판이나 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목판본이나 무판 위에 문자를 조각한 책판을 사용한 것이라면 활자본은 활자를 조립해서 출판한 책이다.

이때의 활자란 글자 한자 한자가 떨어져 있는 것을 원고 내용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고른 다음 판을 짜서 책판 같이 만들어 인쇄한다. 활자란 글자 그대로 살아 있는 글자라는 뜻으로 특정한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조립되었던 활자를 인쇄가 끝난 뒤에는 다시 풀어서 간수했다가 또 새로운 책을 출판할 때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러 가지 책을 조금씩 출판할 때는 더 없이 좋은 인쇄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류의 책을 적게 출판하는 환경에서는 좋은 인쇄 도구였다. 아무튼 우리나라

의 고활자 특히 나라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고서는 다른 책보다도 내용이나 모양이 뛰어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선조가 남긴 고서중에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청주에 소재했던 흥덕사에서 1377년에 간행되었으며 체제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지」는 독일의 금속활자인 쇠본인 구텐베르크성서 보다도 78년이나 앞서 간행 되었다.

지난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는 없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하권 1책만이 소장 되어있다. 오래전부터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고서점에서는 흔히 쓸모없는 고서를 섭치라고 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고서들, 그것이 약탈되었는지 팔렸는지 너무 많은 우리의 고서가 해외에 나가 있다. 우리 것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업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그것이 설사 섭치본이라도 고서 1권쯤은 소장하고 그 향기를 느끼는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사이버공간에서 살아가기



인간과 기계의 만남

지난 1945년이래로 컴퓨터 개발에 따른 정보의 표현은 숫자와 문자에서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가상현실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론 크루거(Myron W. Krueger)는 사이버공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 있다. '1960년대 위스콘신 대학의 대학생이었을 때, 나는 이 시대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인간과 기계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치 양자 역학이 기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한 것처럼, 인간과 기계의 결합문제도 앞으로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는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인간과 기계의 만남은 나아가서 인식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차이가 소멸하는 임계점을 지닌다. 그 후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음성·음향·정지영상·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개발되었다. 1990년대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의 생활공간을 더 한층 컴퓨터·멀티미디어·인터넷·사이버 공간(cyber-space)·정보초고속도로 등 디지털테크놀로지에 의해 과학기술이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

말하자면 1990년대에 컴퓨터 기반의 멀티미디어 응용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체계는 정보소통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미지와 사운드, 텍스트의 새로운 처리기술과 전 지구로 네트워크된 새로운 정보통신의 공간, 가상 현실, 하이퍼텍스트 등의 폭발적 팽창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실제 우리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문화와 기술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 교통수단이 보급됨으로써 우리의 생활공간은 그 이전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이렇게 생활공간의 압축을 가져다 준 매체는 공간과 공간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수단, 곧 사이버공간으로서의 교통수단이었다.

컴퓨터의 통신은 기계를 매개로 하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인간과 기계의 만남이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은 최근 널리 얘기되고 있는 사이보그(cyborg)에 대한 대중적·학문적 담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상과학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보그는 기술과 한 몸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삶을 형상화한다. 예컨대 로봇은 테크노피아적인 기술, 기계+인간의 꿈을 완성하고자 설계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기술과 육체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으며 현대인은 빠른 속도로 사이보그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 빌조이(Bill Joy)는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개인용 컴퓨터보다 백만 배 이상 강력한 성능을 가진 기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컴퓨터공학에 유전공학과 나노기술이 결합됨으로써 30년 내에 인간수준의 지능과 자기복제 능

이제 과학기술의 힘을 빌린 교통수단이 보급됨으로써 우리의 생활공간은 그 이전과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이렇게 생활공간의 압축을 가져다 준 매체는 공간과 공간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수단, 곧 사이버공간으로서의 교통수단이었다.

력을 갖춘 로봇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그 로봇종과 인간의 대결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는 2030년쯤이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내용들이다.

도시공간의 새로운 재편

현대성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생활공간양식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도시공간의 새로운 재편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생활영역은 새로운 전달 통신매체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구조의 재편성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수십만에서부터 수백 만, 수 천만 인구가 거주하면서 도시 범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 국내외적으로 거대 도시들의 출현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계화된 통신과 정보통신의 수단, 물품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대량복제 기술, 동시 다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 등은 시민혁명이후의 대중사회의 출현이라는 사회적 조건과 부합하여 대중시장의 중추로 떠올랐다.

전지구가 거의 자본주의화 된 대중사회로 상징되는 도시민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다중적 경험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존함에 따라 예술과 문화 권력의 매스미디어로 점차 넘어가고 있다. 즉 정보화시대의 전자 감각적 지각은 시뮬라크르, 버추얼섹스, 감성통합, 사이버 지각 등의 새로운 용어로서 환각에 가까운 카오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21세기에 새로운 의미를 얻기 시작한 것은 사이버공간으로서의 유평민적인 공간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화나 집단화가 가능한 통신수단은 집이나 옷 이상으로 중요한 정체성(正體性)의 부착물이 되었고, 예술적 표현의 매개물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독자는 완결된 형태의 책을 읽으면서 시청자는 촬영되어 편집된 영화를 보고 즐긴다. 이미 많은 미술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작품들은 지금까지 원본을 전시하는 장소로 간주되는 미술관이라는 개념자체에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지금껏 하나의 원본이 여러 개의 미술관에서 동시에 전시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화가는 하나의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자신의 작품을 컴퓨터 디스켓에 담거나 인터넷



을 통해 여러 미술관에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미술작품들은 생산자(미술가), 소비자(관객), 유통자(미술관의 화랑)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제도로서의 미술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사이버공간과 몸

최근 인문학과 한국예술의 인접장르 등이 공유해야 할 동시대적인 화두는 사이버공간과 몸이다. 특히 인간의 몸이 중요한 것은 모든 문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적·사회적 활동의 근원이 몸이며,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문화적 생산물과 문명전반에 몸이 투영되어 나타나 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F. Nietzsche)의 『짜라트스트루라는 이렇게 말했다』(1885)의 저서에서나 현상학자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지각의 현상학』(1945)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정신이 우리의 몸의 일부이며 몸은 항상 정신에 선행한다. 타인은 타인의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나며 나는 내 몸으로 타인 앞에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이 세상에 관여하며 세상의 일부가 된다.

그러하기에 몸은 곧 사회성의 기반을 이룬다. 몸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전제이며, 커뮤니케이션은 마음 사이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몸 사이의 문제이다. 디지털 미디어 역시 몸 친화적인 미디어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셜 맥루한(H. M. McLuhan)이 『미디

어의 이해』(1964)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는 인간 몸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불과 10년 남짓되면 데스크 톱 컴퓨터는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며 모바일 컴퓨터가 보편적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를 몸 곳곳에 지니고 다닐 것이며, 독자적인 IP 주소를 갖고 인터넷에 무선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빠른 파급은 모니터 중심의 시각우월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청각과 촉각, 그리고 후각을 포함하는 다각중심적 매체를 보편화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의 사이버공간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수단, 즉 다중매체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의심받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이버공간은 다음과 같은 정체성 및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체성과 윤리문제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 삼자에게 알릴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게 한다. 이 권리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할 것과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동의아래 유통되도록 하는 권리이다. 컴퓨터의 출현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가 제삼자에게 쉽게 노출됨에 따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감시 강박증에 휩싸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져 가고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지적 소유권의 문제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용이나 침해, 무단



복제 및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물질로 구성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무한히 복제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물건의 소유권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일상화 및 윤리의식이 정착이 요구된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범죄의 문제 현재 컴퓨터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즉 자료유출 및 변조



나 파괴 행위, 금융 범죄 행위, 해킹, 사기 및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행위는 컴퓨터와 관련하여 불법적이며 비윤리적 행위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엄청난 돈을 들여 설계한 컴퓨터 시스템이 컴퓨터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고장 날 경우 시스템 복구를 위해 들여야 하는 경비는 실로 막대하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 성(性) 표현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인터넷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흥분감을 제공해 준다

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인터넷은 엄청난 정도로 흥미 있고, 독특하며, 자극적인 정보를 담아낸다. 섹스를 비롯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오락과 유희에 관한 정보들이 마우스를 클릭 하는 간단한 동작을 통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그동안 현실공간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술과 외설논란이 이제는 사이버공간으로 옮겨 졌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의 문제

인터넷 공간의 대중화는 익명성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비실명으로 등록된 ID를 통해서 악성바이러스나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 소문을 생산 유포한 후 ID를 삭제할 경우 거의 완전 범죄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일체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채 완전 범죄가 가능한 공간이 결코 아니다. 패킷 전환방식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오고 가는 정보에는 발신자의 수진지가 표시되며, 그 과정이 모두 기록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거대한 원형감옥이 될 수 있다.

여섯째, 네티켓 기본원칙의 준수

컴퓨터의 대중화로 인해 새롭게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네티즌의 행동 규칙들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행동양식에 대한 원칙에 기초를 둔다. 네티즌의 기본정신, 즉 ①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②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③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④ 사이버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간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 상에서 네티켓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건전한 네티즌의 윤리강령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교수

마음을 담은 공간 건축물 이야기

건축물은 마음의 공간

3월 13일자 신문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아낌 없이 베풀어서 세상에 큰 울림을 남기고 떠난 범정스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고 목숨까지도 뺏어버린 한 범죄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그토록 다르게 만든 것은 그들의 외모도 아니었고, 그들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치관이나 철학이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런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 마음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도 바꾸었으며, 온 나라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삶과 행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건축물의 마음은 공간입니다. 공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건축물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는 공간의 모양과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건축물을 만든 목적은 바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공간은 건축물의 존재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공간을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은 공간을 따라 흘러가고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물이 그릇에 흘러들어가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뀌듯이 공간의 모양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물 속을 내려다보면 마음이 우물 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 기분이 나쁘고,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길을 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바다에 가면 마음이 탁 트이는 듯 시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간속의 빛, 마감재의 색과 질감에 따라 마음의 색깔,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건축물

곡선적인 공간에 황색계열의 빛, 부드러운 원단의 질감이 어우러진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직선적인 공간에 청색계열의 빛, 반사가 잘 되는 금속의 질감과 예리한 모서리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들어가면 차갑고 냉정해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작고 어두운 공간을 만나면 위축감이 듭니다. 계다가 질감까지 거칠고 괴기스러우면 불안감, 공포심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밝고 큰 공간을 만나면 해방감, 자신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 등이 솟아납니다.

작은 창문이 있고, 석양이나 촛불을 연상시키는 빛이 어우러진 공간은 사람을 과거의 추억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평선까지 뻗어가는 길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장소에, 넓은 하늘이 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공간은 사람과 함께 미래의 꿈

다너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공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입니다. 건축물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는 공간의 모양과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을 향해 날아갑니다. 높고 거대한 돔 지붕의 아래에, 물결하나 없이 거울처럼 잔잔한 수면, 중력에 완전히 순종하는 듯 차분히 드리워져있는 높은 커튼, 위에서 쏟아지듯 수직으로 떨어지는 빛 등이 있으면,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넣어줍니다. 날카로운 예각의 형태가 많은 공간에, 어두운 적색 간접조명이 바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거친 표면을 따라 올라온다면 분노나 폭력, 음란이나 음모를 부추깁니다.

이 외에도 공간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마다 각각인 것처럼, 공간도 건축물마다 각각입니다.

머무르는 공간의 가치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공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간보다는 재료나 형태에 눈이 먼 채 가고 가치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감 재료가 뛰어나, 중국산이나 이태리산이나,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전용면적이 얼마나, 주위 시세는 어떠한가에 관심이 많아도 공간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공간을 단순히 크기로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처음 만난 어린이에게 “너희 집 몇 평이야?” 라고 묻고, 같은 평수끼리만 친구가 된다는 얘기를 이미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공간의 크기가 공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사람의 가치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어른들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라고 말하는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미 그곳에 살고 계신 분은 뿌듯하셨을 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언젠가 나도 저곳에 살아야지’ 라든가 ‘어휴 나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보나’ 같은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주입하는 것에 대해 분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라는 말은 “사람들은 집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라는 뜻이고 나아가 “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지, 우리 삶에 가격을 매기는 가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고민해야지, 어떤 공간이 우리를 비싸 보이게 만들어주는가만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자(前者)가

훌륭한 책을 즐겨 읽다보니 꽤 차게 된 책꽂이라면 후자(後者)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책을 많이 사서 꽂아놓은 책꽂이와 같습니다. 전자는 소박해보이지만 지혜의 향기가 나고, 후자는 번지르르하지만 천박한 냄새가 납니다.

몇 개의 문과 몇 개의 벽, 몇 개의 계단들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한 만큼 건축에게 공간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마음, 인격이 눈부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잘 것 없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다보면 떠오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파트 속 공간은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어릴 적 살았던 고향집의 공간은 구석구석 자세히 생각이 납니다. 고향집은 오래전 사라졌지만, 그 공간들은 아직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골목길과 뒷동산은 언제나 거닐 수 있는 마음의 산책로이며, 고향집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별장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나는 어느새 고향집 뒷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보이던 낙동강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면 어느새 안개 낀 새벽 마당에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같이 뛰놀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살았던 아파트의 거실 바닥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집의 마루는 아직도 손으로 만지는 듯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한 만큼 건축에게 공간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마음, 인격이 눈부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잘 것 없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공간은 건축물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는 건축물은 죽은 건축물입니다. 우리의 건축도 훌륭한 건축가와 건축주의 노력으로 많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평면에도 녹색공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낼 일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그런 공간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하더라도 옥먹을까 두려워서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용기를 내서 말했더라면 건설회사, 설계사무소, 입주자로부터 난절한 독설의 화살을 잔뜩 맞았을 것입니다. 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다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건축을 할 때입니다. 저의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아파트를 보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천국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보다 더 좋은 공간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간의 성격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버린 공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몇 개의 문을 열고 지나왔을까요? 몇 개의 벽에 기대 보았고, 몇 개의 계단을 딛고 올라왔을까요? 몇 개의 골목길과 모퉁이를 돌아왔으며, 몇 개의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몇 그루의 나무 그늘에 앉아보았고 몇 개의 다리를 건너보았을까요? 그들 모두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었으며, 같은 것이라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모습이 달랐습니다. 각각 다른 표정과 성격으로 우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지만 공간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공간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벽을 조용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향하고 있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벽이 만들어주는 공간을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공간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픈 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면 보고파집니다. 음식에 에너지가 있듯이 아름다운 것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간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름답게 살아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1. 매트릭스 (1999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영화에서도 공간의 성격을 잘 이용한 예들이 많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와 양과 질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딪히는 한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속도와 양과 질까지 포함시키면 사람이 넘고 싶은 모든 한계를 거의 다 포함시키게 됩니다. 원하는 최고의 것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큰 자유일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을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원하는 바로 그것이, 원하는 바로 그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양과 속도 감으로 다가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에 대한 표현이었으며,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무한한 힘과 자유에 대한 복선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유난히도 시원했던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2.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베를린 독일 1999 다니엘 리베스킨드)

이렇게 날카로운 각도로 막힌 공간은 벽을 따라 공간이 흘러들어 가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어 불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의 성격이 과거 유대인의 암울했던 시기를 표현하기에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을 벽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쪽 좁은 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 명상의 공간 (유네스코 파리 프랑스 1996 다다오 안도)

곡면의 반대쪽 출구가 막혀있어서 어둠 속으로 통로가 들어가지만 했다면 통로의 속도감이 곡면의 구심력을 한층 크게 했을 것입니다. 곡면을 관통하는 속도감으로 인해 곡면의 구심력은 약해졌습니다. 구심력이 상징할 수 있는 '집(執)'을 깨고 관통이 상징할 수 있는 '공(空)'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로 둘러싸인 공간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영역을 뜻합니다. 그것이 수직적 형태일 경우 세상에서 솟아올랐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조재현

"공간에게 말을 걸다" 저자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명덕초등학교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로의 전환

최근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는 공공디자인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공중화장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꾸며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이런 공공디자인에서 소외되는 공간이었다.

학교는 오랜만에 가보아도 변함없는 모습인 경우가 많다. 회색 혹은 무채색조의 학교 공간은 어느 학교나 비슷한 획일적이고 특징이 없는 공간이다. 화장실은 악취가 나기 일쑤이고 폭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가장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학교도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능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



영주초등학교 북카페

공간의 환경개선을 문화적인 디자인이 반영된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만들어주는 곳을 이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 또한 이 사업의 특징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민주주의를 배워

‘문화로 이룸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먼저 건축·디자인전문가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워크숍을 갖는다.

이 워크숍을 통해 각자가 그리는 학교를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수렴하여 디자인 설계안을 만들고 다시 그 설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원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생기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모아가는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08년 첫 사업은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학교의 빈 교실들을 갤러리, 보드게임방, 예절실 등으로 바꾸어 청소년들이 틈틈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도 함께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서울의 대왕중학교, 경남 밀양 무안중학교, 경기도 화성 장명초등학교는 이 사업을 통해 화장실을 개선하였고, 경북 영주 남산초등학교가 빈 교실을 북카페로 조성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09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의 10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하여 서울 용곡중학교, 경기 안양 신성중학교, 경북 김천 다수초등학교, 경남 거창 새별중학교 등 다섯 학교는 화장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고양 호곡중학교, 전북 전주중앙초등학교, 충북 제천동중학교, 부산구화학교 등 다섯 학교는 문화카페를 조성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년 사업을 위한 공모에는 전국의 263개교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뜨거운 열의를 보였고 그중 11개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업을 실시한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되어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는 문화적 촉매가 되었고 일부 농촌학교의 경우 도시 학생들이 전입해오면서 농촌학교가 부활하는 계기도 마련되기도 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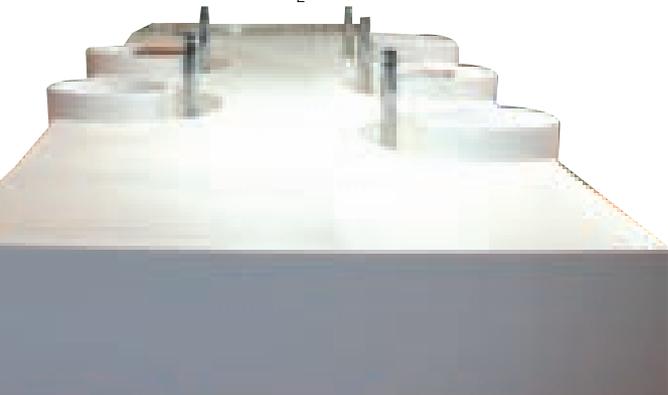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신나민 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08년에 사업을 추진한 5개 학교와 인근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변화는 학생, 교사, 지역사회에 모두 나타났는데, 먼저 학생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생간의 또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교내폭력도 대폭 줄어 학생부 일이 적어지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고 시설물을 아끼고 청결을 유지하게 되었고, 스스로 참여하여 조성한 문화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예절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교양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 공간 개선 이후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자율적으로 독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색감, 건축과 디자





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별도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거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학생들의 학업지도에 보다 열성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학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개선된 학교 환경의 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다. 아울러 교직원간의 소통도 원활해졌다.

학교로서도 이 사업을 통해 소위 '들불효과'가 생겼다. 학교의 일부 공간만을 개선하였지만 이것이 시작이 되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학교 내의 전부를 문화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되어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는 문화적 촉매가 되었고 일부 농촌학교의 경우 도시 학생들이 전입해오면서 농촌학교가 부활하는 계기도 마련되기도 하였다.

앞선 호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야 진정한 선진화

라고 했듯이(김기현 '한국의 교육과 아동 청소년의 행복') 이러한 학교 공간의 작은 변화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는 청소년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의 건축학자 폰티(Gorgio Ponti)는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 (School building as a teacher)며 학교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사회를 만든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근대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꽃을 피워 모든 학교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

한현경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1. 호곡중학교
2. 안양신성중학교
3. 영주초등학교 북카페
4. 한국도예고등학교
5. 대왕중학교



共通禮節

공통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1986년에 沙溪의 家禮輯覽에 그림까지 곁들여서 쓴 우리나라의 절을 발표했더니 嶺南지방의 학자가 말하는 것이었다. “사계는 畿湖學派이니까 가례집람의 절은 기호학파의 절일 것이다. 嶺南學派의 절은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가례집람의 절을 ‘기호학파의 절이라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절’이라고 하는가?”

다행히 필자가 간직하고 있던 영남학파 退溪선생의 수제자인 鶴峰 金誠一 선생에게서 나온 童子禮의 절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동자례는 영남학파의 正統인 학봉 감성일 선생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이다.

내용을 보면 기호학파 사계선생이 가례집람에 그림까지 곁들여 쓴 절의 설명과 한 글자도 다르지가 않다.

4백여년 전의 우리나라의 절은 학파에 관계없이 통일된 절을 했었던 것이다.

그것이 잘못 전해져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두 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나라의 절을 통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분 선생님의 절의 설명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비교해 보면 사계는 兩手, 稽首至地即氣, 連兩拜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을 학봉은 雙手, 頓首至地即起, 仍一揖以後拜라고

한 것이 다르니 동작과 뜻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 沙溪 家禮輯覽 展拜圖 (사계 가례집람 절의 기본동작)

凡下拜之法 一揖小退 再一揖即俯伏 以兩手齊按地 先跪左足 次屈右足 (略蟠還左畔) 稽首至地即起 先起右足 以雙手齊按膝上 次起左足 連兩拜

▶ 鶴峰 童子禮 拜起(학봉 동자례의 절하고 일어나는 법)

凡下拜之法 一揖小退 再一揖即俯伏 以兩手齊按地 先跪左足 次屈右足 頓首至地即起 先起右足 以雙手齊按膝上 次起左足 仍一揖而後拜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똑같이 “아랫사람이 절하는 법은

한 번 읊하고 조금 물러나서 다시 한 번 읊하고 곧바로 굽어 엎드려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명바닥을 짚고 먼저 왼발을 꿇고

다음에 오른발을 꿇고 머리를 숙여 땅에 이르면

곧바로 일어나는데 오른발을 먼저 일으키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위에 올려놓고 다음에 왼발을 일으켜서

연이어 두 번 절한다 (이어서 한 번 읊한 뒤에 절한다).”고 하였다.

사계는 ‘왼발등이 아래가 되게 두 발등을 포갠다’고 하였는데

학봉은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다를 뿐이다.

8. 남자의 절

1) 남자의 큰절, 계수배(稽首拜)의 기본동작

①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선다.(그림 2328-1①)

②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는다.(손을 벌리지 않는다.)
(그림 2328-1②)

이때 쪼그리고 앉은 다음에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는 것이 아니고,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으니까 쪼그리며 엎드리게 되는 것이다. 공수한 손을 풀어 손을 벌려서 바닥을 짚는 것은 아니다.

임금에게 하는 고두배(叩頭拜)를 할 때에나 이마로 땅바닥을 두드리기 위해 손을 벌려서 바닥을 짚는 것이다.

③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그림 2328-1③)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 것은 힘이 센 오른발로 체중을 떠받쳐야 편하고 쉽게 동작이 되기 때문이다.



2328-1① 남자 큰절 기본자세



2328-1② 남자 큰절 손을 바닥에



2328-1③ 남자 큰절 왼무릎 꿇는다



2328-1④ 남자 큰절 두 무릎 꿇음

④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그림 2328-1④)

⑤ 왼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오른 발등을 왼발 바닥에 붙여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그림 2328-1⑤)

⑥ 척추가 굽어지는 자세를 피하기 위해 발등을 포개지 않고 두 엄지발가락을 가지런히 붙이기만 하고 두 발등을 땅바닥에 대기도 한다.

나의 몸을 낮춰야 상대를 높이는 것이되기 때문에 발등을 바닥에 대야 한다.

⑥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댄다.(차양 있는 것, 또는 모자를 썼을 때는 차양이 손등에 닿게 한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된다.

두 팔꿈치를 날개 같이 벌리지 않고 몸에 붙이듯이 한다.) (그림

2328-1⑥)

⑦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댄다.

(그림 2328-1⑦)

⑧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다.(그림 2328-1⑧)

⑨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세운 오른쪽 무릎 위에 얹는다.(그림 2328-1⑨)

⑩ 오른발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왼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은다.(2328-1⑩)



2328-1⑤ 남자 큰절 엉덩이 내린다



2328-1⑥ 남자 큰절 엎드린다



2328-1⑦ 남자 큰절 일어 난다



2328-1⑧ 남자 큰절 오른 무릎 세운다



2328-1⑨ 남자 큰절 공수손 무릎위에



2328-1⑩ 남자 큰절 일어나다

2) 남자의 평절, 돈수배(頓首拜)의 기본동작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다만 큰절의 ⑥번 동작, 이마가 손등에 닿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즉시 ⑦번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르다. 큰절 계수배(稽首拜)는 천천히 하는 절이고, 평절 돈수배는 조금 빨리 하는 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남자의 반절, 공수배(控首拜)의 기본동작

큰절과 같은 동작으로 한다. 다만 큰절의 ⑤번 동작 뒤꿈치를

벌리며 깊이 앉는 것과 ⑥번 동작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손등에 대는 것과 ⑦번 동작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는 부분은 생략한다.

공수한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절이다.

(그림 2328-3①~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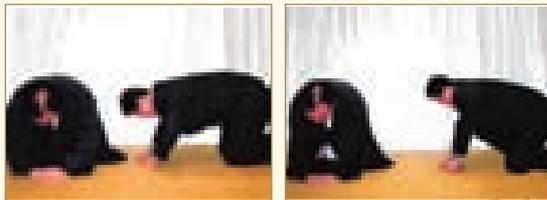
2328-3①남자반절 상대를향한다

2328-3②공수한 손으로 바닥 짚는다



2328-3③왼무릎을 꿇는다

2328-3④오른 무릎을 꿇는다



2328-3⑤등허리 수평 약간 굽힌다

2328-3⑥오른무릎을 세운다



2328-3⑦공수손을 무릎위에 얹는다

2328-3⑧일어나 두 발을 모은다

반절은 웃어른이 아랫사람의 절에 답배하는 절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고 시작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동작을 빨리 해야 한다.

4) 남자의 약식반절

반절은 답배하는 절이라 답배할 대상이 손자의 친구라든가 답배하는 어른이 기운이 쇠약하다든가 한 경우에는 약식 반절, 또는 한 팔만으로 바닥을 짚어주어 답배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남자의 약식 반절은 앉은 채로 공수한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가 손을 떼면 된다.(그림 2328-4①)

한 팔만 짚어 주는 답배는 앉은 채로 손바닥 하나만 앞의 바닥을 짚었다가 손을 떼면 된다.(그림 2328-4②)



2328-4①남자의 약식 반절

2328-4②남자의 한 팔 짚어 주기

5) 남자가 임금에게 하는 고두배(叩頭拜)의 의미와 기본동작
고두배는 옛날에 궁중의 공식적인 의식행사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하는 절이다.

에서에 보면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절은 사계수 일고두(四稽首一叩頭)라고 해서 큰절을 4번 하고 고두배를 한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고두배 한 번은 한 번 꿇어앉아서 이마로 바닥을 3번을 두드린다고 하였다.

왕조시대가 아닌 현대는 고두배를 해야할 대상이 없다. 굳이 고두배를 해야할 대상을 찾았다면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의 대성전(大成殿)에서 공자에게 절을 할 때에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 해서 중국의 역대 황조에 의해서 왕으로 추숭(推崇)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자의 위패에게 절을 할 때에는 고두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균관의 제규정집(諸規定集)에 보면 ‘대성지성문선왕에 대한 배례에 관한 규정(大成至聖文宣王에 對한 拜禮에 關한 規程)’이 있는데 제7조에 “남자는 두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후 4번 공수한 손을 나누어 바닥을 짚고 머리로 바닥을 두드리는데 4고두배를 한다(男子 兩膝齊跪後 四回手分按地 用頭叩地 一跪四叩頭拜)”라고 했다.

동 규정 제8조에는 “여자는 공수한 손을 어깨높이로 끌어올리고 이마를 내려 손등위에 대고 두 무릎을 가지런히 꿇은 후 4번 윗몸을 굽히되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일례 사굴신배를 한다(女子拱手引上肩高 俯額着手上 兩膝齊跪後 四回 上體屈身 頭不至地 一跪四屈身拜).”라고 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임금에게 하는 고두배를 자상하게 규정 한 데에 이어서 제10조에 “대성전 안의 공자와 함께 모신(다른)신위에 대한 배례는 남자는 큰절 두 번, 여자는 역시 큰절 네 번을 한다(大成殿內 配·從享位 拜禮 男子 稽首再拜 女子 肅拜四拜).”라고 규정해 공자에게만 고두배를 하고 다른 성현은 임금이 아니니까 조상에게와 같이 큰절을 겹절로 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요사이 유림(儒林)사회에서는 절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몰라서 전국의 서원(書院) 향사(享祀)에서 선생님에게 고두배를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 남자 고두배 방법

- ① 공수한 손을 풀고 두 손을 어깨넓이로 벌려서 바닥을 짚는다.(그림 2328-5①)
- ② 왼쪽 무릎을 먼저 꿇는다.(그림 2328-5②)
- ③ 오른 무릎을 왼쪽 무릎과 가지런히 꿇는다.(그림 2328-5③)
- ④ 왼 발등을 바닥에 대고 오른 발등을 왼발 바닥에 대며 두 발꿈치를 벌리며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는다.(그림 2328-5④) 발등을 안포개고 두 엄지발가락을 가지런히 모아도 된다.

- ⑤ 윗몸을 굽히고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두 손사이의 바닥에 댄다.(그림 2328-5⑤)
- ⑥ 이마를 바닥에서 떼며 팔꿈치를 펴고 상체를 약간 들어 옆드린 자세를 취한다.(그림 2328-5⑥)
- ⑦ 5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 2328-5⑤)
- ⑧ 6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 2328-5⑥)
- ⑨ 5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 2328-5⑤)
- ⑩ 6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 2328-5⑥)
- ⑪ 5번 동작을 다시 한다.(그림 2328-5⑤)
- ⑫ 이마를 바닥에서 떼며 팔꿈치를 펴고 상체를 들며 오른 무릎을 세운다.(그림 2328-5⑦)
- ⑬ 손을 바닥에서 떼어 세운 무릎위에 공수하여 올려놓는다.(그림 2328-5⑧)
- ⑭ 오른발에 힘을 주어 일어난다.(그림 2328-5⑨)
- ⑮ 두 발을 모으고 공수하여 원자세를 취한다.(그림 2328-5⑩)



2328-5⑤ 이마를 바닥에 댄다



2328-5⑥ 이마를 바닥에서 댄다



2328-5① 남자 고두배 공수 풀다



2328-5② 남자 고두배 왼무릎 꿇는다



2328-5⑦ 오른 무릎을 세운다



2328-5⑧ 공수 손을 무릎에 얹는다



2328-5③남자고두배 오른무릎 꿇는다 2328-5④ 뒤꿈치 벌려 깊이 앉는다



2328-5⑨ 힘주어 일어난다



2328-6⑩ 두 발을 모으고 공수한다

동해문화원

「동해시 서낭제」발간 -
115개 서낭제 마을별 전승단위 조사



동해문화원(원장 김형순)은 지역의 서낭제전승단위로 전승 또는 전승 중단 된 서낭제 115개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동해향토사록 제10권 「동해시 서낭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동해문화원 이한길 전문위원(강릉원주대 출강)에 의해 조사된 서낭제는 당초 기존 문헌을 통해 조사 보고된 단위는 40여개의 전승단위였는데 현장구술조사를 통해 전승 중단된 곳 60곳 전승되는 곳 49곳 기타 5곳 총 115개의 전승단위를 찾아 방대한 자료(원고지5,000매와 사진 400여장내외)의 서낭제를 마을별 제보자의 구술을 통해 발간했다.

서낭제는 각 마을의 공동체 제이로서 동제의 한 절차로 삼아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을 모시는 의례로 동해시의 경우 과거 자료에서 서낭당 위주의 조사로 인해 하나의 서낭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당이 여러 개인 경우 각기 다른 제의처럼 기술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서낭당이 아닌 서낭제위주로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재 강원도의 서낭제 현황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곳은 일부 지역이 있는데 동해지역의 서낭제 전승 율로 보면 과거 묵호 읍의 경우 23곳과 북평읍 지역의 경우 26곳으로 북평 지역의 전승 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종합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타 지역의 전체 서낭제에 비해 전승 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편 마을에서 모시던 신은 성황을 비롯한 토지신, 여역신 등 3위신이 주신이며 묵호읍과 북평읍이 동일하게 단오날 제의가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근본적으로 삼척부터 강릉지역이 합쳐진 동해시가 단오문화권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동해시 서낭제 특징에서는 밝히고 있어 동해시의 향토사를 조명하고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마을신앙을 통한 제의형태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문화원

‘배우는 기쁨, 살맛나는 세상!’
2010문경문화학교 개강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 ‘2010문화학교’가 3월 5일 11시 영강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강식을 갖고 32주간의 강의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는 채대진 문화원장과 현한근 차기원장, 이한성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이시하·고우현 도의원, 탁대학 시의원, 수강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경문화학교는 2001년 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올해는 23개반 538명이 유료 등록을 하여 개강한 것이다.

특히 문경문화학교는 문경시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힘입어 민요, 한국무용, 풍물반예다가 올해는 가야금반을 증설하여 문화원의 존재의의를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채대진 문화원장의 개강사에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고, 우리의 의식도 겨울의 긴 잠에서 깨고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문화감성도 깨어나고 있는 이때 문화학교 개강식을 갖게 되어 기쁜 마음 그지없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문화원이 영강문화센터로 이주를 하여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이점 문경시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문화학교를 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신 문경시 문화예술과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에 문경문화학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번창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가야금 교육을 위해 특별히 예산을 지원받아 문경문화원이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특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경문화학교는 제가 취임한 2004년에는 5개반으로 흥내만 내는 형편이었으나, 작년에는 23개반 522명이 수강하였고, 올해에는 23개반 538명이 등록하여 명실공히 문경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이는 경상북도내에서 문경문화원이 유일한 일이며, 전국을 통틀어도 사례가 드문 현상이라.’며, ‘그 결과 작년에는 우리 문화원이 ‘2009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코 우리 문화원이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것이

아니라, 문경시민들의 높은 문화수준이 높게 평가 받은 것이며, 이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 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채대진 문화원장은 '올해는 배우는 기쁨, 살맛나는 세상'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공자님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뒀다.' 며, '세상에 배워서 아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으며, 태어나서 평생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대, 이렇게 문화학교를 통해 배우고 익히면, 그 배움 중에서도 으뜸의 배움이 아닌가 자부한다.' 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서 이한성 국회의원과 신현국 문경시장이 축사를 했다.

성남문화원

성남문화원 2년여의 준비 끝에
판교 쌍용거(巨)줄다리기 시연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예로부터 판교에서 매년 대보름날 지역주민들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떨쳐 버리는 행사로 개최하던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회를 2년간의 준비 끝에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이대엽 시장, 김대진 시의회의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고희길 국회의원위원장 등 내빈 및 시, 도의원과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영기 도의원의 진행과 설명으로 시연회를 진행했다.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는 성남문화원이 1980년에 복원·재현해, 1984년부터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등에 출전 이후,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중단됐다가 2009년 보존회를 재정비시켜, 여주군 점동면 삼할리에서 벗질을 마련하고, 판교원주민 20명이 동아줄을 꼬아,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와 성남농협 주부농악단과 판교동 입주자 등 300여명이 흥겹게 시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시연했다. 줄다리기는 쌍줄을 이용해 암줄과 숫줄로 편을 나누고, 풍물과 함께 청룡줄에는 기혼 남성이, 황룡줄(암줄)은 아내네와 미혼남녀가 편을 이루고, 용두라고 부르는 줄 머리에 비녀처럼 생긴 커다란 비녀목을 꽂아 암줄과 숫줄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에서, 세 번의 줄다리기를 거루는데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이기는 것으로 속설이 전해오고 있다.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시민의 힘으로 건립하는 윤동옥 선생 기념비 제막식



시흥문화원(정상중 원장)은 매년 우리 지역의 인물을 체계적으로 발굴·선양하여 시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늘날의 정신문화를 꽃피우는데 목적을 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찾아 시흥의 인물로 선정한다는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9년 첫 인물로 항일 애국지사 윤동옥 선생을 선정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증자료 수집과 다양한 고증의 단계를 거친 후, 시민의 힘과 뜻을 모아 건립하는 윤동옥 선생의 기념비 제막식을 2010년 3월 1일 가졌다.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내빈들과 윤동옥 선생의 후손 및 모금운동 참여자 등 1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날 행사를 함께했다.

행사에 앞서 시흥경찰서의 에스코트로 시흥모범안전자치회 회원 택시 20여대가 태극기를 꽂고 시흥 시가지를 돌아 행사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쳐며 시민들에게 이날 행사를 알리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의례와 묵념, 내빈 축사와 인사말,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경과보고와 윤동옥 선생 업적 낭독, 추모 및 제막식을 거쳐 만세삼창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정상중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던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의 피끓는 열망으로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후손의 의무를 다할 때이며 시흥문화원이 계속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 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계속해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이름 없는 지역의 위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동옥 선생은 1891년 시흥시 산현동 출생이며 29세 되던 해에 당시 수암면 일대 독립만세운동 선두에서 지휘하였고, 수암면 사무소 앞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고성으로 낭독하였으며 성남 군중들이 면사무소·주재소 등을 불태우려 하자 독립이 되면 관공서는 국유재산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며 흥분한 시위 군중을 무마시켰다. 1967년 77세를 일기로 타계하였으며 1996년 8월 15일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강동문화원

2010년 강동문화원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은 2010년도 2월 26일 15시에 강동구민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사업결산 승인과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정기 총회는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의안심의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국민의례, 문화비전 선언, 이원달 원장 개회사 순으로 진행했으며 제2부 의안심의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장 인사와 2009년 감사보고 안건심의의 기타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동구청 전상영 행정관리국장과 강동문화원 유재만 부원장, 이흥원 이사, 박미숙 이사, 김서기 이사, 이의용 감사, 전희구 감사등 임원진과 회원, 성호흥 신임 사무국장 등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최암송 문화대학 1기 회장이 문화비전 선언 낭독으로 회원들은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도 했다.

이원달 원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동네일지라도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고장의 발전과 문화의 향기를 드높이는 데 자부심을 갖고 문화홍보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평생회원으로 강동구의회 김용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동문인협회 김병관회장, 전재동 강동문인협회 고문, 윤철환 강동문인협회 전회장, 장순철 강동서예가 협회 회장, 정순모 서예가협회 전회장, 정영기 향토사학자, 이신강 강동문인협회 고문, 강동구 어린이집의 원장님 3분과 이태원 강동미술협회 전회장, 조영호 강미술협회 부회장이면서 미술단체 청색회 회장, 조공연 강우회 회장, 이병동 전 문화원 감사등 참석하신 회원을 직접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홍보대사의 역할을 당부 했다.

강동구청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은 이혜식 구청장을 대신한 격려사를 통해, 올해 문화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았으며 조례가 발효되면 강동구청과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해 본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의안심의에서는 이원달 문화원장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으며 먼저 2009년 감사

보고와 제1호 안건으로 '200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 건' 제2호 안건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의 건' 기타사항 순서로 진행되어 원안대로 결산 승인과 예산이 결정되었으며 전재동 회원의 재에 따라 문화원의 일반회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의결하기도 했다.

문화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예산 확보방안 등으로 문화원 이사과 부원장 제도의 증원문제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으나 이사회에서 3월중에 별도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제5기 문화대학 개강 수강생 접수 70명 선착순 마감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는 지난해 문화대학 3, 4기에 이어 2010년 제5기 문화대학을 개강할 예정이다. 약 260여명이 수료한 이 문화대학은 강동문화원을 주민들의 문화사랑방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강동문화원이 그 어느 때보다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문화대학은 '별들의 강의'가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수강신청을 받아 4월 14일 개강하여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또한 4월 문화유적답사와 5월 미술관 견학으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지난 3, 4기의 문화대학이 그러했듯 이번 문화대학도 유명하고 실력 있는 별들의 강사진으로 초빙돼 문화대학 수강생들과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명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인간시장', '인간수첩', '대발해' 등의 김홍신 소설가가 이번 문화대학의 문을 열고, 식지 않는 이시대의 고전적인 화두가 '전통예절교육' 강영숙 예지원장, '세종대왕', '갯마을', '조선왕조500년' 등의 극작가 신봉승 교수, '별비 한 주머니', '세한도 가는 길' 등 명시집을 출간한 시인이자 서울대명예교수인 유인진 씨 등도 강사로 나와 자신들의 삶에 묻어 있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서양화가인 이원달 문화원장은 '왜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강의명으로 그림이 있는 삶에 대한 강의를 들려 줄 것이며, 문화대학에 깊은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신 김갑수 음악평론가, 기혜경 학예연구사, 이명옥 성악가, 이영란 교수, 이태호 교수도 이번 문화대학에서도 명강의로 수강생들의 마음을 채워줄 예정이다.

특히 신영희 명창의 '우리 소리를 찾아서'와 아침마당의 출연으로 호평 받은 동서신의학병원 고창남 교수의 '내손이 약손이다'는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공개강좌로 이번 문화대학은 수강신청 기한(2. 17 ~ 4. 2) 내에 강동문화원 ☎ 488-0386, 480-1359 전화로 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강의 일정 및 내용

분야| 특강4 · 미술2 · 음악2 · 문학3 · 연극1 · 답사1 · 견학1 총 14강좌

* 일정 및 강사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성문화원

‘우리 소원 들어 주소서’
정월대보름 의성민속달맞이



2010년 경인년 새해 정월대보름인 지난 2월 28일 '민속달맞이행사'가 봉양면 탑산악수온천 관광지내에서 기관단체장 군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의성문화원(원장 허영자)이 주최하고 탑산악수온천개발대표(김태성)와 봉양면청년회(회장 이갑영)가 공동 주관하고 의성군과 봉양면 기관단체장협의회가 후원하여 풍성한 불거리와 함께 펼쳐졌다.

하나라도 풍물패공연, 지킴이 풍물패의 난타, 의성시낭송회 낭송에 이어 평안과 인성을 대보름달에 기원하는 '월령 기원제' 모든 부정과 사악을 쏘라버리는 달집 · 별집 태우기로 모든 액운을 떨쳐버린 행사로 진행했다.

합천문화원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유네스코 한국위 MOU 체결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막 오른다. 2011년 9월23일~11월6일(45일간) 경남 합천군과 해인사 일원에서 열리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과 관련해 19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했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이사장 김태호 도지사)는 19일 오전 11시 도청 회의실에서 김태호 도지사,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심의조 합천군수, 선각 해인사 주지스님, 차관암 합천문화원장을 비롯한 재단이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각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기록 유산인 대장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2011년 개최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글로벌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태호 도지사와 전택수 사무총장, 심의조 합천군수, 해인사 선각주지스님은 이날 협약서에서 대장경과 해인사가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장경판 해외전시, 홍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시행키로 했다. 또 대장경 가치와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학술포럼포럼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태호 도지사와 전택수 사무총장, 심의조 합천군수, 해인사 선각주지스님은 이날 협약서에서 대장경과 해인사가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장경판 해외전시, 홍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시행키로 했다. 또 대장경 가치와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학술포럼포럼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 태지역 자문회의'를 경남에서 개최기로 약속했으며, 자문회의는 오는 5월 21~24일 니콜라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유네스코 아, 태지역 국가위원회 장, 차관급 대표단 15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는 이 기간 문화축전 홍보, 해인사 템플스테이 운영 등 경남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호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2011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문화와 녹색산업이 융합된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모멘트가 될 것이다"면서 "유네스코가 대장경문화축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논산문화원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성료

제8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가 지난 2월 27일(음력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시부터 논산천 둔치에서 논산문화원(원장 박응진)이 주최하여 임성규 논산시장, 이인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많은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논산오거리부터 축제장까지 논산에스민연합품물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무대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다양한 국악공연이 펼쳐졌다.



가훈 써주기, 장승공예, 한지공예, 전통 연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행사는 물론 널뛰기,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많은 축제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논산시 줄다리기 대회와 제기차기 대회가 열려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가족연날리기 대회에서는 직접 만든 연을 갖고 참가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연을 날리며 가족 사랑을 느끼고 좋은 추억도 만들었다. 행사의 대미로 강강수월래와 함께 달집을 태우며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논산시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핵가족화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개최하는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축제는 내년에는 좀더 풍성한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에 있다.

공주문화원

우리 조상 뿌리 찾기 사업

『공주(공산) 이씨와 명탄 서원』

『공주세거 경주이문의 학문과 사상』 책자 발간

〈우리조상뿌리찾기사업〉은 공주시청의 지원으로 공주문화원이 지난해 새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네 문중의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우선 공주이씨(공산이씨), 경주이씨, 남평문씨, 진주류씨 학술세미나가 우리 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이 사업은 우선 학술 세미나를 선두로 해당 성씨에 관한 유적답사, 종합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졌으며, 첫 번째 책으로 『공주(공산) 이씨와 명탄 서원』을 발간하였고, 두 번째 『공주세거 경주이문의 학문과 사상』을 발간하였다. 먼저 『공주(공산) 이씨와 명탄 서원』의 본문을 살펴보면 임선빈 연구원의 조선초

기 공주이씨의 성장과 공주에 대해 조사한 자료와 이해준 교수의 명탄서원의 연혁과 변천, 홍제연 연구원의 공주이씨 관련 문화유적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 또한 공주이씨라는 것이다. 공속공파 20대손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공주세거 경주이문의 학문과 사상』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상의 교수의 공주세거 경주이문의 학문과 사상, 정경훈 박사의 17세기 산림의 지성과 초려선생의 출처관, 백원철 교수의 성암 이철영 선생의 생애와 항일사적에 관한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후로 남평 문씨, 진주류씨도 발간할 계획이다. 훗날 열과 성으로 연구하여 일궈낸 이러한 책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귀중한 교육자료와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이걸재 부원장 『공주말사전』 발간



우리 고장 문화계의 마당발인 공주문화원의 이걸재 부원장이 우리 고장 공주의 사투리, 민속, 속담, 생활용어 등을 담은 사전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충청남도에서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2008년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3회 전국항도문회공모전에 응모해서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총 555페이지로 된 이 사전에는 약 10,000여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공주지역의 사라져가는 사투리와 민속놀이, 농기구에 대한 부분명칭이 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편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전이 비록 완전한 형태의 것은 아니지만,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는 언어들을 기록해둠으로 후일의 연구자들의 기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주말사전』은 공주문화원의 또 하나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주의 전통마을 8집 발간

〈공주의 전통마을〉지는 공주문화원에서 해마다 한 번씩 내는 아주 뜻 깊은 책이다. 이번에도 역시 책이 나와 여덟 번째로 발간하는 〈공주의 전통마을〉지가 되었다. 이 책에는 공주의 각 읍·면·동 단위의 마을을 선정하여 여러명의 필자가 각 마을마다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를 찾아내어 마을에 대한 아름다운 면모들을 잘 나타내 주었다.

나태주 원장은 발간사에서 ‘〈공주의 전통마을 8집〉이 우리 고장 공주의 숨겨진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좋은 자료가 되고 또 고장의 안내서가 되고 공주를 더욱 아름답게 드날려주는 좋은 것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제8집에 소개된 마을은 ▶공주시 산성동 · 금성동 ▶공주시 교동 ▶공주시 오곡동 ▶유구읍 석남리 ▶유구읍 노동리 ▶이인면 이곡리 ▶탄천면 덕지리 ▶계룡면 죽곡리 ▶계룡면 화현리 ▶반포면 학봉리 ▶장기면 장암리 ▶의당면 가산리 ▶정안면 월산리 ▶정안면 정원리 ▶우성면 옥성리 ▶우성면 보흥리 ▶사곡면 고당리 ▶신풍면 산정리 등 19개 마을이다.

동래문화원

동래 3.1독립만세 재현행사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에서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충절의 고장인 동래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애국·애항심을 함양하며 민족사랑의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코자 제9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부산3.1독립운동 기념탑참배 및 동래고등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성원주 동래문화원장, 이진복 국회의원, 최찬기 동래구청장, 동래문화원 임원진을 비롯한 여러 인사 및 학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굶은 날씨에도 강당을 가득 메웠으며,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삼창, 연극, 태권무시범, 학생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괴산문화원 봄맞이! 『미선나무꽃전시』초대

경인년 처음 맞는 봄날! 『미선(尾扇)나무 꽃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반 꽃과 달리 잎 보다 꽃이 먼저 개화되는 미선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우리나라 괴산·영동·부안 등 5개소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3개소가 전국 최고 청정지역인 충북 괴산(槐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선나무는 유전학적으로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1속1종으로 세계최고의 식물이며 대한민국 특산식물로 괴산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임금이 거주하는 궁궐에도 조경수로 심겨져 사랑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잎과 열매의 추출물이 향염 및 항암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발견되어 한림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특허등록을 '06년과 '07년도에 하였습니다. 또한 코리아나 화장품에서는 미백 및 주름개선 향산화 효능으로 '08년 특허출원 하였으며, 충청북도산하 연구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보건의료센터에서도 항 알러지 실험과 '09년 중원대학교의 『미선나무 꽃 추출물의 향산화 연구』결과 탁월한 효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선나무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종으로 가치뿐 아니라, 향암 및 향염?항알러지, 미백 및 주름개선, 향산화작용 등 효능으로 우리의 건강과 미용을 지키는 약용 및 기능성 식물로 재발견 되고 있습니다.

선녀라는 꽃말에 어울리듯 미선(尾扇)의 아름다운 자태와 미혹의 향은 세계적인 『미선 꽃 · 향 축제』로 발전함은 물론, 향료 및 향수개발과 향암 및 향염, 향산화 효능을 이용한 기능성 농축산물 개발로 발전되어, 청정지 괴산(槐山)의 군화(郡花)로서 가치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식물로, 세계인이 사랑하는 식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선을 사랑하는 괴산 농민과 미선사랑 동호회원들이 그동안 애지중지 가꿔 온 전시 분화용 미선 2,000여점을 꽃을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미선(尾扇)나무 꽃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유일한 종으로 대한민국 특산식물이며 천연기념물인 『괴산(槐山)의 미선(尾扇)』 아름다운 꽃과 미혹의 향은 세계 최고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백호해 봄맞이! 『미선(尾扇)나무 꽃 전시회(제2회)』에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3월 괴산문화원장 이재철

바로잡습니다

2월호 문화북덕방 한국점자도서관

녹음도서는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7쪽) 1970년대 육병일 선생은 특수교 육진흥법 점자도서관 설립에 관한 조항을 법 제도화하였고(18쪽) 데이저라는 프로그램은 녹음도서 콘텐츠입니다.(같은 쪽) 입체북은 촉각도서로 수정하며, 도서 출판 점자에 관한 내용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북소리서비스는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같은 쪽)

내용에 잘못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내용에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우 리 문 화 소 식 NEWS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



지난 3월 11일(목) 11시에 우리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일부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관악문화원 김윤철 원장, 용인문화원 이종민 원장, 진천문화원 남명수 원장이 새로이 운영위원으로 선임' 되었다고 말하며 '바쁘신 중에도 원근간에 참석하시어 감사'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에 관련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기타사항으로 차관암 합천문화원장이 2011 합천 해인사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최와 관련 전국문화원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회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행정구역 순)

김윤철(관악문화원장) · 이원달(강동문화원장) · 백이성(북구낙동문화원장) · 김문경(구리문화원장) · 이종민(용인문화원장) · 염돈

호(강릉문화원장) · 남명수(진천문화원장) · 정재권(청양문화원장) · 서승(전주문화원장) · 신태균(영암문화원장) · 장영복(칠곡문화원장) · 정연가(하동문화원장) · 차관암(합천문화원장)

'2010년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접수마감' 향토사대중화사업 18일 심사,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22일 심사 마쳐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공모(어르신문화프로그램, 향토사대중화에 대한 선정심사가 지난 3월 18일과 23일 양 일동안 개최되었다.

이번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은 지난 2월 17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12일 접수를 완료했다. 접수결과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181개 사업(136개원 신청)과 향토사대중화는 89개 사업이 응모되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민간 문화기획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심사결과는 4월초순 이전에 발표된다.

회장동정

- 2,25 마포 일성중학교 졸업식 참석
- 3,11 운영위원회 참석
- 3,13 성주문화원 준공식 참석

문화원 새얼굴



**대전광역시지회장에
박세규(朴世奎)**

1942년생.
대전 서구문화원장
충청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
대전 서구의회 의원



**인천서구문화원장에
박한준(朴漢濬)**

1967년생. 서구문화원 부원장 역임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장 역임
인하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푸른희망 서구의제 21 공동대표 (전)



**안성문화원장에
양장평(梁長平)**

1942년생.
현) 한경대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현) 유니테크 대표이사



**연기문화원장에
임영이(任英二)**

연기군 군청평가위원장
(사) 한국판소리보존회부이사장
호서대 · 순천향대 출강. 재선임



**문경문화원장에
현한근(玄漢根)**

문경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상주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범죄예방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조정위원
문경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
문경시 선거관리 위원
경북서예협회 초대작가



**영양문화원장에
박종태(朴鍾太)**

1944년생.
영양염연초 생산협동조합장



**고령문화원장에
우상수(禹尙洙)**

1942년생.
전) 고령군기획감사실장
현) 고령문화원 부원장
현) 평화통일자문위원



**산청문화원장에
김태훈(金泰勳)**

1952년생.
현) 산청문화원 부원장
현) 대한한약협회 부회장
현) 동양당 한약방

원 장 동 정 NEWS

퇴임 원장



**전 인천서구문화원장
정인표(鄭寅杓)**

1933년생.
경기도 부천시 장학사
경일초등학교장 정년퇴임



**전 안성문화원장
김태원(金泰源)**

1939년생.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사) 한국도덕운동협의회 경기도회장



**전 문경문화원장
채대진(蔡大鎭)**

1942년생.
근암서원중견추진위원장
JC 회장
범죄예방위원회장 역임



**전 영양문화원장
오원일(吳元一)**

1941년생.
영양읍장
영양군 기획감사실장



**전 고령문화원장
최상호(崔相鎬)**

1931년생.
고령군의회 의장(1, 2, 3기)
고령군농업협동조합장
경상북도의장협의회 회장
통일교육전문위원



**전 산청문화원장
권영달(權寧達)**

1936년생.
유도회 단성향교 지부회장
성균관 전의
도천서원 원임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년 5월 25일~28일



● **대회일정** 2010년 5월 25일~28일

● **대회장소** 코엑스, 서울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협력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참가자** 193개국 국내외 문화예술교육관계자 2,000여 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511호
이메일: 2010artsedu@korea.kr
홈페이지: www.artsedu2010.kr

